



www.maggun.com

2017.02 vol.71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9 772383 813003
ISSN 2383-8132



For the Greener Food

- 효송그린푸드 김낭주 대표
- 군산대학교 최윤 교수
- 아람컴퍼니 송성희 대표
- 수학영재 구암초 정민규 학생
- 피터팬 승마장 김경환 대표
- 소화권번 부채춤 신명숙 교수
- 군산학교급식협동조합 이규영 회장
- 한울축산 정경표 회장
- 공간 '따숨' 고보연 작가
- 재래시장 상인들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 '은주'를 그리며

Now

국립군산대학교



GO TO THE
KUNSAN

새만금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강의실에서 계속되는 토론의 열기는 식히지 못합니다.
젊은 열정과 꿈이 가득한 캠퍼스,
오늘도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학생이 중심인 행복한 대학,
여기는 국립군산대학교!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eb. www.kunsan.ac.kr add.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Just!
Kunsan!
Since 1947

교육혁신의 선두!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A)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

산학연계 교육 선도대학!
지역중심국립대학 중
전국 유일 PRIME 사업 선정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2년 연속 우수대학 선정

산학협력의 강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3년 연속 선정

PING®



핑 골프웨어 군산수송점

GRAND OPEN

20만원이상 구매시 고급양말 증정/30만원 이상 구매시 골프볼(2pcs) or 골프우산 증정

PING 골프&스포츠 정상·이월 복합매장

신상품

30% SALE (일부품목 제외)

이월상품

50% SALE (일부품목 제외)

핑 골프웨어 군산수송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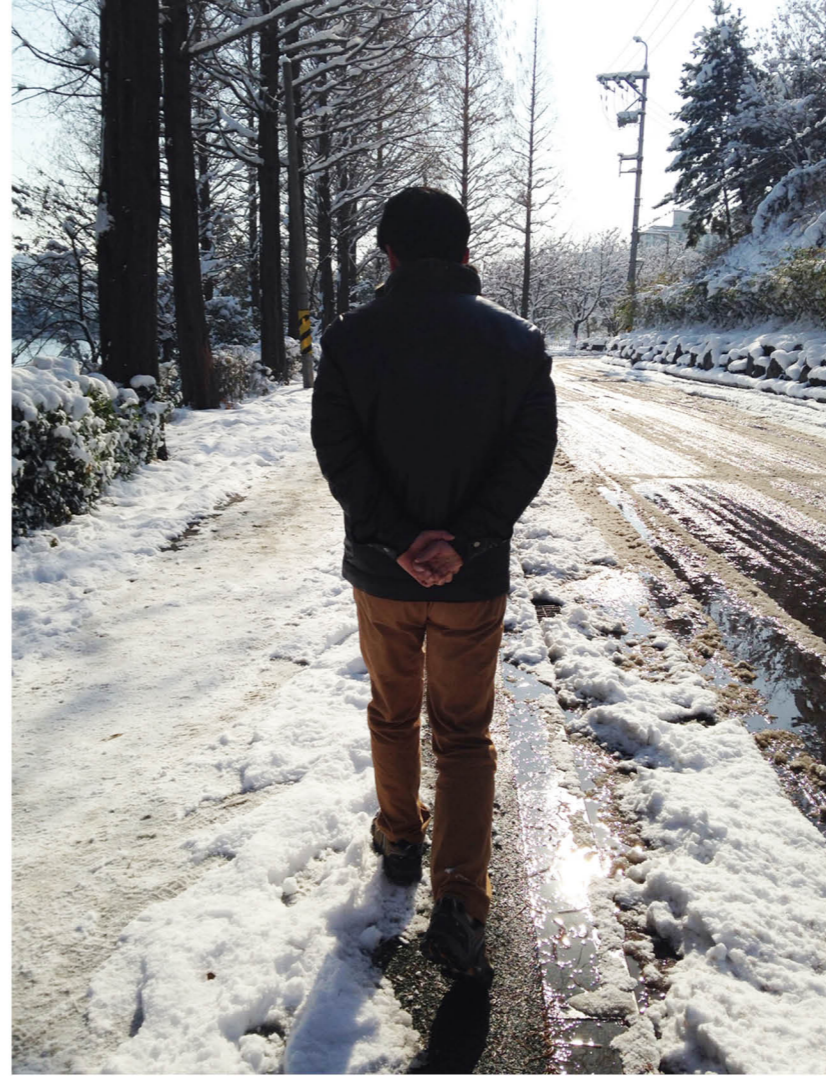
전북 군산시 수송동 외환은행 옆
Tel.063) 463-3800





풍요·융화·품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세계 최장의 33.9km 새만금 방조제!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은파호수

(겨울 끝자락)

호숫가 나뭇가지
바람결 차가운데

흰 눈 사이 성급한 새싹들
파릇파릇
봄을 재촉하고

겨울 끝자락
터벅터벅 발길 따라서
스치듯
또 계절이 지나간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4)

탄핵 정국 와중에도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저마다 새로운 정치로 나라를 잘 이끌겠다는 공약이 난무한다. TV뉴스는 주자들의 지지도 추이와 함께 날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여준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출마 중도 포기는 예상대로였지만 그것도 자의가 아니라 마땅한 대선주자 감이 없는 집권당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전략적 희생타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실정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은근히 대선 출마 욕심까지 내비치는 듯한 그를 보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가 웃을 일' '미친 짓'이라는 말로 비웃거나 '황 대행이 가당찮게 대선에 출마할 정도로 바보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목살하는 이도 있다. 탄핵 정국에서 드러났듯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선출한 결과 우리는 너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제 어떤 선택이 남은 것인가. 무엇보다 민주화를 위한 노력 등 그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 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 실천여부, 청렴도, 국사 전반에 걸친 공약의 내용에 있어 촛불 민심과 시대정신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론적이 아닌 세부적 개혁 계획과 이행 의지 따위가 명제가 될 것이다. 판단 근거 없는 막연한 호감, 그저 네 편, 내편이라는 진영 논리만으로 표를 던졌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면 말이다.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함으로써 받는 큰 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플라톤의 일갈이 새삼 가슴을 친다. 만일 이런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드러난 바와 같이 국정 시스템은 무너진 채 비선 실세들이 온 나라를 분탕질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사실을 도대체 아는지 모르는 채 하는 건지 대통령은 관저에서 주사나 맞고 미용에 열중하느라 하루해를 보내고 있을 터이니 말이다.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지경이고, 보수진 진보진 하는 가짜 이념 대결로 나라는 극렬하게 양분화 된 채 위기를 자초하는 어정쩡한 외교, 줄줄 새는 예산으로 제구실을 못하는 국방, 무너진 복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재난대비시스템 등 무엇 하나 국민민복과는 거리가 먼 이 정부로부터 그토록 당하고도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국민이라면 어찌 나라에 희망이 있다 할 것인가. 하지만 이번 사태를 일생의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기 위한 안목을 새롭게 한다면 분명 국민주권국가로의 변화를 앞당길 전화위복의 호기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성의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관심합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주시거나 jay0810@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이달부터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세요.

E-mail _jay0810@hanmail.net **Fax** _ 063) 911-1856

협찬업체

- 베니키아 아리울 호텔 063-464-2005~7_ 숙박권
- 다이도 063-452-3800_ 식사권
- 오죽 063-464-5625 _ 식사권
- 하이트진로 063-453-5111 _ 맥주
- 미즈커피 063-446-2867 _ 음료권
- 바나나팩토리 070-4274-8839_음료권
- 커피점빵 063-468-1776_음료권

* 군산 하이트진로에서 제공하는 맥주를 받고 싶은 구독자께서는 신분증을 지참(미성년자 불가)하시고, 매거진군산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직접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이벤트 당첨자

* 응모시 주소, 연락처, 원하시는 상품을 필히 기재해주세요.

지난 호 크로스워드 퍼즐 당첨자

윤중섭	전영조	김수곤	송병진	장원일
정찬웅	김정화	김지혜	임형진	백종현
고경임	김향숙	한남이	황서희	이은지

SINCE 1953 하이트진로

여러분은 이제부터
hite만 마십니다!

친맥하라 hite

경남라세!!
기리

경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이나 안전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발생율을 높입니다.

배포처

군산매거진은 매달 초 1~3일에 발간되며 아래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발간되는 매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 원도심** 신포우리만두 063-445-0389
골드복권방 063-445-1212
던킨도너츠 063-443-7887
미다원 063-462-2132
우리문고 063-445-0031
- 나운동** 비달헤어 063-461-7015
한길문고 063-463-3109
- 은파** 파라디소페르두또 063-471-8525
- 유원지** 산타로사 063-462-9062
뮤직포유(RED HAT) 063-466-8202

- 기 타** 군산역
군산CC 063-472-3355
커피집빵 063-468-1776
다이도 063-452-3800
군산근대역사박물관 063-443-8283
고우당커피숍 063-443-1042
아리울웨딩 063-453-3200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매월 초 발행되며 위 목록의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타지역 및 맥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는 홈페이지 www.maggun.com 의 정기구독 코너에 성함, 연락처, 주소와 입금자 성명을 남겨주시거나, 매거진군산 (063)445-1856으로 연락 주시면 1년간 매달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일년 배송료는 25,000원입니다.

입금처 신한은행 110-327-977900

예금주 아이씨엠 이진우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jay0810@hanmail.net



Vol. 71 | 2017.02

	발행인·편집장	이진우	jay0810@hanmail.net
	디 자 인	박유경	282pyk@hanmail.net
		진현태	gkfp3456@naver.com
		김동섭	nan901125@naver.com
	주 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시 민 기 자	조종안	chongani@hanmail.net
	상 임 고 문	이희찬	lhc-good@hanmail.net
	문 화 디 렉 터	이화숙	lila3006@hanmail.net
	시 민 기 자	배지영	okbjy@hanmail.net
	시 민 기 자	이생곤	grandlee@kmni.co.kr
	시 민 기 자	심권택	sys2091@daum.net
	자 유 기 고	이춘우	kinkyfly@naver.com
컬 럼 니 슷	윤승조	gsforum@hanmail.net	
컬 럼 니 슷	이영진	younggeen2@naver.com	

제작 ICM www.creativemind.kr / (063)445-1856

주소 전북 군산시 중앙로 1가 23-11

출판신고번호 467-2011-000002

인쇄 진포인쇄 (063)471-1318

온라인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번호 군산 라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디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근대군산 1930
시간여행
Modern History
Time Travel
to Gunsan

군산이 당신의 기억을 힐링해 줄꺼야



이번에 군산에 가면
빵도 먹고,
찜빵도 먹고,
간장게장도 먹고,
콩나물국밥도 먹고,
호원사진관하고 은파호수공원하고
철길마을에 가서 사진도 찍고,
새만금을 미친듯이 둘러보고,
일본식가옥에서 조상의 아픔도 느끼고,
근대역사박물관도 구경할거야.
그리고,
잠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잘거야.

즐거운 여행의 시작은
좋은 숙박에서 시작됩니다.
군산에 오시면
편필리지로 연락 주세요.
당신이 원하시는 게스트하우스를
소개해드릴게요.

나비잠 게스트하우스
010-8436-8810
군산시 구영3길 34-2



햇살이 가득한 집
010-6678-6759
군산시 거석길 39



꽃잠 게스트하우스
010-4489-2663
군산시 구영3길 67



레마 게스트하우스
010-4463-1563
군산시 중앙로 205



사이사이 게스트하우스
010-5401-1959
군산시 구영6길 64



게스트하우스 이웃
010-4048-8811
군산시 구영1길 11-2



전국 최초 게스트하우스 마을기업
군산편필리지협동조합
www.funvillage.kr 063-446-8830

양념젓갈 전문 가공업체
효자밥상·젓가樂
(유)효송그린푸드

김낭주 대표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회현면 소재 젓갈 전문 가공업체인 '효송그린푸드'의 김낭주(金娘姝)대표. 주변에 커리어우먼으로 회자되는 이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김낭주 대표는 단연 손꼽을 만하다.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는 당찬 성격으로 사업 수완의 싹을 내비쳤던 그 소녀가 지금은 어엿한 중소기업체의 대표로써 지역사회 경제인으로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녀 인생의 키워드는 뚜렷한 목표, 포기를 모르는 도전, 결과를 확신하는 긍정마인드라 하겠는데 하지만 지금의 그녀의 있기까지 걸어온 삶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공사판과 시장에서 일찍 세상을 배웠던 당찬 초딩

그녀가 태어나 자란 곳은 선양동 고지대. 당시 부친은 '산골어진곳'이라 불렸던 도로변에서 영세한 공작소를 운영했던 어려운 가정이었다. 남들은 철없이 놀기만 할 나이인 초등학교 1학년 때 당돌하게도 동네 공사 현장에서 벽돌과 시멘트포대를 나르면서 억척스레 번 돈을 엄마에게 드리며 자랑스러워 할 만큼 일찍 철들었던 그 소녀는 한번은 할머니께서 명산시장 우물가에서 김치를 팔아보겠다고 머리에 이고 나갈 때 김치를 사 먹는 사람도 있느냐고 불평하며 따라갔던 적도 있었는데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쑥스러움을 숨기고 용기를 내어 “김치사세요” 했더니 어린 아이여서 가엽고 기특하게 보았는지는 몰라도 신기하게도 김치가 팔리더라는 것이다. 그런 현실 경험을 통해 어린나이임에도 나도 돈을 벌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맛보자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던 게 아닌가 한다며 김남주 대표는 당시를 회상한다.

중,고생 시절 주말을 이용하여 그녀는 은과, 공설운동장, 월명공원 수시탐 주변에서 노점 커피 판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자판기가 없던 시절이어서 의외로 수입은 쏠쏠했다. 지금은 커피 종류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개개인의 기호도 다르지만 그때는 무조건 투투투 방식이 통했다. 커피 2스푼에 프림 2스푼, 설탕 2스푼씩 배합하는 그녀만의 방식인데, 싱그럽고 꽃다운 여학생이라서 못 총각들의 선심을 자극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장사가 잘 돼 매 주말 이틀간씩 한 달 8일 수입이 당시 웬만한 직장인 첫 월급과 맞먹는 15만 원 정도나 되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즐거웠고 그녀는 그렇게 번 돈을 차근차근 모았다.

결혼

22세 되던 해 그녀는 도선장 부근에 삼촌과 동업으로 횡집을 개업했다. 힘든 일이었지만 어떤 일이든 한번 시작하면 최선을 다하는 또순이 기질을 타고났던 터라 제대로 식당업을 배우며 억척스럽게 일했다. 그러던 중 지인이 주선한 소개팅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자신이 부친의 병원비와 동생들 학비를 벌어야 했기에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는데 신랑 될 사람보다도 시어머니 될 분이 자신을 첫눈에 며느리 감으로 찍어 혼사를 서두르는 바람에 두세 번의 만남 끝에 두 달 후 새해 첫날인 1월1일 혼례를 올렸다.

시댁의 가업 계승

그녀의 시댁은 회현면 금광리. 이제는 한 집안의 남편이자 며느리로서 생활환경과 삶 자체가 새롭게 바뀌는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당시 시댁은 시어머니가 원진식품이라는 상호로 인근 조개젓을 취합하여 판매하는 영세 소분업 수익이 전부였다. 남편을 비롯한 자녀들은 그러한 가업을 누구도 이어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적 안목이 남달랐던 김남주 대표는 가업을 계승하는 방향으로 사업성을 모색, 승산을 내다보았다. 결혼 초기 그녀는 시어머니한테서 젓갈 10통을 받아 역전 새벽시장에 나간 적도 있다. 처음엔 자리다툼으로 옆 상인의 텃세도 만만치 않았지만 당찬 그녀의 언변에 두 손 들더니 나중에 그 상인이 그녀의 자리도 알아서 잡아줄 정도로 친해졌다. 또한 오전엔 마트 영업을 나가고 점심시간 후 한가한 틈을 탄 식당 영업과 초저녁엔 주점 영업을 뛰는 등 한 시도 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하선정 요리 지역 대리점 사장으로부터 위탁 판매 신청이 들어왔다. 이후 위탁 판매는 전국대리점으로 확대, 전국 순회 영업의 물꼬가 트이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시어머니의 생업이 사장(死藏)되지 않도록 맥을 이어 우리나라의 훌륭한 발효식품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욱 싹텄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으로만 염장하는 전통방식을 지양하고 저염 양념젓갈로 고급화





하는 게 급선무로 보였다. 모두가 가난했던 과거에는 황석어 젓갈처럼 염도가 높은 젓갈이 대세였으나 지금은 건강에 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 염도가 높은 식품을 기피하는 세태로서 변화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염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맛은 개량한 고품질의 식자재가 요구되고 있었다. 예컨대 낙지젓이나 오징어젓, 창란젓 등도 원재료의 성질과 성분이 각기 다른 만큼 그에 따른 각각의 염장 기법도 입으로 마치 김치처럼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방법을 달리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가내 가공판매업에서 벗어나 비위생적이었던 작업 환경도 개선하는 등 과감한 투자로 식품사업 허가도 받고 그에 따른 사업장을 가져야만 했다. 당시 허가 조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젓갈 취급 시 배출되는 오폐수 때문으로 이의 처리 시설을 완비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그녀는 2000년 6월 이후 2년 이상 시(市) 관계자를 쫓아다니며 '항구도시의 특화산업인 젓갈산업을 사장시키는 것은 안 될 말'이라며 끈질기게 설득했는데 그러던 중 폐수관련 법이 일부 완화됨에 따라 2002년 2월 드디어 인허가를 받아 낸다.

원진식품에서 '효송그린푸드'로

시골마을에서 영세적 가공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영업에 한계를 느꼈던 세월이 8년여. 그러는 동안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한 것이 그나마 자산이라면 자산이었는데 본격적 인허가를 득함으로써 그녀는 열심히 홍보와 영업에 매달렸다. 그러자 생각지도 않은 결실이 나타났다.

대만 바이어가 관심을 보여 도(道) 공무원과 무역협회 관계자가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그러나 변변한 자체 가공 건물이 없던 상황이어서 난감하던 차 식품업체를 운영하던 지인이 흔쾌히 창고를 빌려줘 우선 그곳에서 2년 정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김남주 대표가 회현면 남군산로 현 위치에 웰빙 젓갈과 절임식품 가공신축공장을 준공한 건 지난 2011년도. 더불어 FDA승인과 식약처 HACCP인증도 취득했다. 또한 지역의 찰보리와 맛깔난 젓갈과 나물류를 기본으로 하는 도시락 사업도 구상했던 터라 도시락 공장도 짓고 이참에 상호도 '효송그린푸드'라 바꿨다. 본래 효심이 지극했던 그녀답게 '어머니에게 효도하고(孝) 소나무(松)처럼 한결같은 마음을 담는다'는 의미로 그녀가 작명한 것이다. 하지만 공장 건축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들이닥친

여러 악재들은 그녀를 너무 힘들게 했다. 복잡한 건축허가 과정도 그녀를 지치게 했고 공장과 디자인개발 설비 등이 완비되자마자 일단의 주민들이 공장 입구 도로에 진을 치고 한전철탑공사 반대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시위대와 온갖 차량으로 뒤엉켜 통행마저 어렵게 되는 바람에 당장 직원들의 출퇴근이 큰 지장을 받는가 하면 여타 이런저런 악재들로 공장 가동은 맥없이 늦춰지고 있었다. 사실 철탑 예정지는 어떠한 행정적 도면에도 표기가 안 돼 감춰지는 바람에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 불찰이라면 불찰이었다. 그래서 그녀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너무도 컸다.

사업의 성장

시련은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며 성장을 이룰 때의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다. 악재들이 사라지면서 사업은 점차 안정기로 접어들었다. 주변의 방해나 돌발성 악재로 고통을 겪을 때면 화도 나고 억울함도 컸지만 초지일관의 신념과 목표가 뚜렷했기에 안으로 참고 삭이며 때를 기다렸다. 무엇보다 꼭 성공을 하고 말겠다는 의욕은 더디 가더라도 포기하는 없으며 난관을 극복해내겠다는 자신감을 불러 일으켰다. 실패나 악재의 경험도 따지고 보면 인생의 값진 교훈이 될 터였기 때문이다.

경영자 수업

사업을 하자면 이론적인 전문지식과 인적 교류를 통한 소통망 확대 및 정보의 습득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에 따라 그녀는 시간을 내어 유관 기관이나 대학에서의 경영 수업도 열심히 받았다. 예컨대 2008년도 전북식품산업 CEO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지역기술경영아카

데미 교육과정, 파워브랜드 파워기업 교육과정과 함께 무역협회 회원 등록과 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인증을 취득하는가 하면 HACCP(식품안전관리기준)팀장 교육과정, 원광CEO아카데미, 전북경총노사대학 CEO과정, 전북프랜차이즈 교육과정, 전북대 공대 최고경영자 기술경영과정(MOT), 서울대학교 식품영양 CEO과정을 수료하고 행정전문학사를 취득할 만큼 관련 공부에도 열정이 넘쳤다. 바쁜 가운데서도 공부 차 서울을 왕래하느라 너무 피곤하고 힘은 들었지만 이 모든 과정은 후일 자신의 사업적 성공에 큰 디딤돌이 되리라 믿었다.

'아자아자 도시락' 창안

그녀가 서울대 CEO 1년 과정을 밟으며 만난 사람들 중에는 연륜답게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전문가도 있었다. 그녀는 그들로부터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했는데 이에서 창안한 것이 비빔도시락이다. 지금은 편의점에서도 도시락이 잘 팔리고 있어 아이디어만 잘 살리면 승산이 있어 보였다. 그녀가 구상한 것은 나물류 전처리 도시락이었다. 맛갈스런 양념 젓갈과 나물류 등을 비벼 먹기 편하도록 도시락 용기도 둥근 그릇 모양으로 2단계로 겹치게 제작해 아래 칸에 밥을 넣고 위 칸에 반찬과 비빔 소스를 배열, 손쉽게 비빔 수 있게 한 방식으로 용기의 디자인에서부터 제품의 신선도까지 꼼꼼히 신경을 썼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도시락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불과 48시간으로 너무 짧아 이를 연장하는 기술상의 문제 해결이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만 되면 지역의 찰보리 재배 농가도 살리고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새로운 도시락 문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계획대로라면 가격은 3,800 원대로 하고 병장요법을 통해 기술적 유통기한 연장도 가능해 보였다. 사랑하는 아들, 어머니라는 뜻에서 상품명도 '아자아자 도시락'이라 명명했다. 6억 이상의 설비투자가 소요되는 이 도시락사업은 초기 GS기업에 납품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성사 단계에서 예기치 않은 철폐 반대 시위로 차질을 빚어 무산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데 대신 첫갈류와 전처리된 나물류 등 일부 품목에 한해 관내 학교급식으로 선정되어 납품 중에 있다. 하지만 올 3월 런칭 주문이 예정돼 있어 올 중순경엔 전반적 설비 가동에 따른 출하가 성사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대표가 직접 뛰는 영업

설립 18년차를 맞고 있는 '효송그린푸드'는 회사의 대표가 직접 영업 현장을 뛰며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사업 초기엔 영업에서부터 생산, 납품까지 혼자서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회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직원이 늘면서 업무 분담도 되었지만 한 가지 영업력이 취약하다는 게 문제였다. 김 대표는 지역은 물론 전국을 누비다시피하며 직접 영업을 뛰었다. 그런 노력의 결실인지 소문을 듣고 서울 롯데마트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이후 10여 개 이상의 지역 매장으로 확대되었다. 사실 납품에 따른 제반 여건 분

석은 최소 3년 이상의 검토 시간을 필요로 한다.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경우 회사가 입을 피해의 뒷감당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 사장으로부터 전국판매망 요구가 있었지만 거절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요구를 거둬내고 있어 언젠가는 점차 늘리는 추세로 갈 생각이다.

김 대표는 첫 수출을 성사시켰을 때의 얘기도 들려준다. 10년 전쯤 무역협회 회장이 군산에 내려와 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의 일이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남자 사장들이어서 공연한 위축감도 있었는데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용기 있게 손을 들었다.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그녀는 말했다. "저도 수출의 성취감을 맛보고 싶습니다.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수출을 해봐야만 그것에서 쓴맛도, 단맛도, 개선해야 될 것도 체험을 통해 터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역협회장은 반색했다. "맞습니다. 저렇게 하려는 의지가 넘치는 업체를 도와줘야 됩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무역협회 전북지부는 1차로 그녀의 사업체를 수출기업으로 지정해줬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녀의 지론은 한결같다. 무엇이든지 직접 부딪쳐보지 않고서는 해결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미주지역(LA현지마켓, 뉴욕, 하와이 등)과 독일, 베

트남에 수억대 수출을 비롯하여 중국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다. 이에 따라 LA한인축제, 아리랑축제를 비롯하여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도 매년 참가하고 있다. 중국엔 지난 2007년도 시장 개척 차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항저우, 홍콩, 타이완 등 현지인에게 시식을 통한 홍보로 폭발적 반응을 얻어 고무된 적이 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특성상 돈이 벌리는 만큼 그 이면의 위험 요소도 커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진출을 보류할 생각이다. 언젠가 거대 인구를 가진 중국 수출이 이루어지면 큰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여건이 완비되기 전에는 속단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효송그린푸드'는 '효자밥상'으로 서비스상표등록을 하고, '젓가樂'이라는 젓갈 전문브랜드를 개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쳤다. 회사 내에 실험실을 갖추고 품질검사 전담요원을 두어 자체 검사에 만전을 기울이는가 하면 더 나아가 R&D 신제품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군산대학교와 MSG 무첨가 천연조미소재,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기술, 신제품 등을 공동 개발 중에 있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 확립을 위한 인증도 취득함으로써 내수와 수출 등 매출액도 해마다 신장 추세를 보이거니와 정규직 및 성수기 일용직까지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돈보다 우선한 가치는 '사람'

사업을 통한 인생 공부를 하면서 그녀가 터득한 철학이 있다. 돈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다. 욕심이 앞서 돈만 쫓다가 인생을 흐트러치는 사례는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거니와 돈은 복구가 가능하지만 잃은 사람은 복구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효송그린푸드'에는 19명의 직원을 비롯하여 올해 중에도 15명 내외를 더 총원할 계획이어서 지역사회 고용창출 면에서도 일정 부분 기여가 크다. 그녀는 직원들 모두를 더불어 사는 가족 개념으로 여긴다. 직원들 가운데는 취약 계층이 많아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사업이 성장하면 급여도 한결 더 올려주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만한 단계가 아니어서 안타깝다는 속내를 비치기도 하는 그녀는 그럼에도 직원들 모두 말없이 맡은 바 업무를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 감사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관건이라 여겨 스스로 사람 복이 많음을 느끼기도 한다.



신앙생활이 주는 평정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에서도 그녀가 마음의 안식과 격려를 받는 곳이 있다. 11년 전 처음으로 나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다. 당시 유치원생이던 3살 6살 자녀들을 데리고 나갔던 어느 작은 교회에서 젊은 목사의 설교에 감동, 큰 힘과 위안을 받고 신앙에 입문했다. 한 때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건물 월세라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제언했지만 목사는 만류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여타 헌금으로 마음을 대신한다. 신앙생활을 통해 '사람이 가진 재물은 좋은 일에 쓰면 더 채워주고 나쁜 일에 쓰면 금세 빼앗아가는 것'이 신의 섭리이자 세상의 이치라는 것도 절감했다. 부질없는 물질적 소유욕을 떨치고 마음을 비우게 되자 비로소 세상의 그늘이 눈에 들어왔다.

김 대표는 현재 불우아동들에게 매월 장학금 후원, 한국국제기아대책(사), 장기기증재단 등에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섬김의 일환으로 무료 식사와 선물세트 증정 및 회원 어르신초청한마당잔치를 열어 매년 식사와 기념품 등을 증정하는 등 어려운 소외계층을 돌아보는 사회활동에도 열심이다. 그녀는 신앙생활을 한 뒤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한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찾았을 뿐더러 가족들 모두의 표정이 밝게 변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돕고 응원해준 최대 조력자인 남편을 위시하여 사랑하는 가족들, 직원들, 고객들, 그리고 모든 지인들까지 하나같이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밝은 웃음을 보여준다.

주요 포상

- 2009. 12 우수중소기업인상
- 2010. 11 농림수산물부장관 표창(소상공업발전, 농림수산물산업 발전 공로)
- 2013. 7 군산상공회의소장 표창

효자밥상 선물세트_ 주박장아찌, 명품 젓갈류(오징어, 꼴뚜기, 창란, 낙지, 갈치, 새우)
수산김치류_ 창란, 오징어, 명란, 꼴뚜기, 갈치, 낙지, 비빔낙지
도시락_ 아자아자 젓갈보리비빔밥, 아자아자 시래기보리비빔밥
건어물류_ 건다시마, 북어채, 다시멸치/지리멸치, 건미역



호송그린푸드
군산시 회현면 남군산로 863
063)468-3917



어류학자의 외도

참 아름다워라

시집 발간한

군산대학교 최윤 교수

글 | 이진우(발행인)
jay0810@hanmail.net



군산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 최윤 교수(58)가 “참 아름다워라”라는 제목으로 시화집을 발간했다. 시집은 1부 “내 마음 속 군산” 2부 “탕자의 기도”로 구성되었고, 1부에는 월명공원과 은파호수 등 주로 군산의 자연을 소재로 한 글을 담았고, 2부는 그의 기독교 신앙에서 나오는 묵상 글을 실었다. 또 각 페이지마다 그가 직접 그린 그림과 핸드폰으로 촬영한 월명공원과 은파호수, 군산대학교 캠퍼스 사진도 함께 담았다. 프롤로그에 소개한 것처럼 그의 전공은 시인이나 사진작가와와는 거리가 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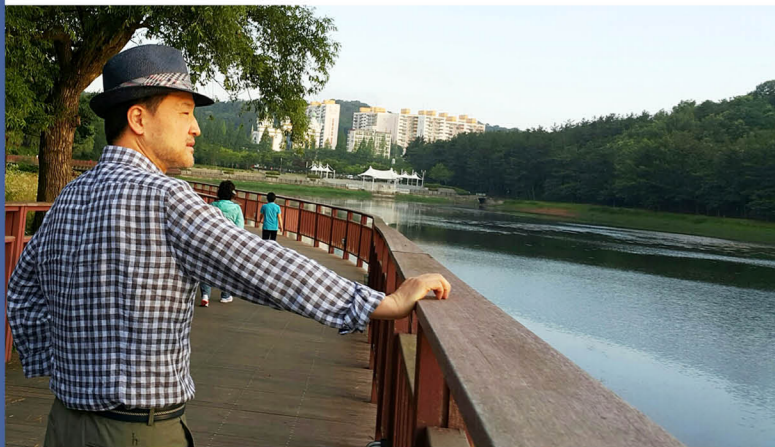
“나는 시인도 사진작가도 아닙니다. 마음 속 파고드는 시 구절을 쓸 줄도 모르고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다닌 적도 없습니다. 군산 이곳저곳 거닐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산과 호수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면 들고 있던 핸드폰에 담아서 떠오르는 느낌 몇 마디 글

로 옮겼을 뿐, 월명산과 은파호수가 있는 군산에서 태어나 개복교회를 섬기고 군산대학교에 재직한다는 것은 더할 수 없이 축복받은 일입니다.”

덧붙여서 그는 말한다. “시와 사진은 모두 감성과 자연을 보는 관찰력에 나온다고 생각한다. 깊은 감성과 평범해 보이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사물을 바라보는 예리함이 시와 사진작품을 만들어낸다. 시를 짓고 사진작품을 만드는 것은 어류학이라는 과학 분야와 다르지 않다. 물고기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연구에 몰두해서 논문을 만들어 내는 과정과 깊은 감성과 관찰력으로 시와 사진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은 흡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내가 시집을 발간한 것은 결코 외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군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꾀보선창에서 망둑어를 잡고 놀았던 것이 어류학자가 된 계기가 되었다는 최 교수는 「상어(지성사, 1999)」 「망둑어(지성사, 2009)」 「한국의 바닷물고기(교학사, 2002)」 등 다수의 물고기 관련 저서를 저술하였고, 상어 학자로 알려져 있다.



월명산 1

개나리 가지들
실바람
살며시 흔들어 깨웁니다.
겨울이 갔다고

진달래 꽃눈을
가랑비
촉촉이 적시어 속삭입니다.
봄이 왔다고

개나리 진달래가
가지개를 땀니다.

월명산에
봄이 피어납니다.

2016년 3월 18일 월명산에서



내 마음 속 군산

경암동 물문다리
피란민 아저씨 아주머니들
세상 떠난 지 오래고
구시장 앞 돌산 있던 곳에
돌산보다 더 높은 아파트가 우뚝 서 있다.

아흔아홉다리 기찻길 추억은
아스팔트 도로에 묻혀 아득하고
짜보선창 갯벌
망둥어 잡던 여섯 살 개구쟁이
어느 덧 신여덟인데

금강 줄기 맞이하는 서해 바다
묵묵히 바라보면서
오늘도 수시탑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진달래꽃 개나리꽃
어김없이 봄으로 찾아오고
월명산은
이른 아침 새 소리로 화답한다.

50년 세월에
도시 얼굴 바뀌었어도
월명산의 봄은 올해도 그대로이다.
내 마음 속 군산은 변함이 없다.

2016년 4월 1일 월명산에서

은파호수 (겨울)

호숫가 앙상한 나뭇가지
감 하나에 쌓인 눈덩이를
한줄기 바람 다가와
쓸어내리고 지나간다.

동백은 추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한순간 꽃잎을 떨어 버린다는데
그러지 못하고 눈 내리는 이날까지
감 하나
홀로 매달려 전하는 의미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이 겨울이 고단한 누군가에
포근함으로 다가가소서!

2015년 12월 은파호수에서



IMF로 부친 사업의 부도로 가세 기울어..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난 성공 스토리

[인터뷰] (주) 아람컴퍼니 송성희 대표

글 | 이생곤(시민기자)
grandlee@kmni.co.kr



재계서열 2위였던 대우그룹을 비롯해 30대 그룹 가운데 절반 이상을 공중 분해시킨 IMF '쓰나미'는 군산에서 꽤나 잘 나가던 송성희씨 아버지 목재사업까지 집어삼켰다.

97년 12월 군대에서 휴가나온 송성희씨는 아버지 사업체가 부도난 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군대에서의 마지막 휴가에 기쁨을 만끽하면서 찾아온 집, 문을 여는 순간 집 내부의 가전제품들마다 빨간 딱지가 덕지 덕지 붙여져 있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에 직면한 그는 아버지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다.

“성희야 우리 망했다. 차마 군대에 있는 너에게는 알리지 못하겠더라. 망했다는 소리에 혹시 군생활에 영향이 있을까봐서...”

아버지와 통화후 망치로 맞은듯한 멍한 상황에서 아버지 일터로 급히 달려갔다. 이미 직원들은 다 떠나간 상황이었고 아무도 없는 공장안에서 한숨만 내쉬던 아버지, 그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생전 처음 아버지의 무기력함을 보았다.



“정말 그때 표현을 하자면 ‘절망’이라는 단어가 딱이네요. 형 둘에 누나 한명 제가 막내인데 어릴 적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자랐거든요. 아버지 사업이 무척 잘 되어서 먹을것, 입을것, 학용품 등 말만 하면 똑딱이었죠.”

지금은 어엿한 아웃소싱업체의 사장으로 자리잡은 송성희씨, 20여년 전의 흑독했던 기억에 대해서 담담하면서도 여유있는 모습으로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온 스토리를 풀어나갔다.

밑바닥부터.

집도 없이 거리로 나왔게 된 가족들과 많이 울고 또 울었다. 급한대로 친척 집에 거처를 마련했다. 죽은 자식 불알 만져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는 철저히 유복했던 과거를 잊었다. 제대 이후 복학은 언감생심 그는 바로 생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제대한 싹점이 IMF 환란중이었기 때문에 구직을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기업체에서는 자르는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업체에 취직한다는 것은 감히 엄두를 낼수가 없었지요. 다행인 것

은 제 성격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앞이 안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산 입에 거미줄 치겠다’라는 생각으로 취직자리를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다녔지요(웃음).”

취직자리를 알아보던중 생활지 구인란에 ‘**주유소 주유원 급구’라는 문구가 그에 눈에 확 들어왔다. 우선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용돈을 좀 모아놓자는 심산으로 주유소 알바에 문을 두드렸다. 체면이고 뭐고 화려했던 과거를 다 묻어두고 주유소 총잡이를 시작했다. 남들 보다 앞서 출근하여 사무실 문여는 것 부터 주유소 주변 청소하는 것 모두다 그의 몫이었다.

“누구한테 인정 받고 싶어서 부지런한 것은 아니었고 그냥 삶에 대한 간절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이 망했으니 일어서는 것은 돈을 버는 것 밖에 없다. 뭐 이런 간절함이었죠.”

직원들을 마구 대하는 소사장(※ 직영 주유소 대표) 때문에 한달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알바생들이 많았지만 그는 끈뚱하게 알바직으로 1년을 버티

어 냈다.

신분이 상승되다.

어느정도 돈이 모아지면서 이직을 염두에 둔 계획을 소사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주유원으로 정식자리를 줄테니 남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군산을 떠나서 서울쪽으로 가서 원가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정식직원 신분 상승을 시켜준다는 말에 혹해서 그자리에 눌러앉게 되었지 뭐니까(웃음).”

상냥하고 인사성 밝은 그의 성격 때문인지 점점 주유소를 이용하는 손님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늘어나는 손님으로 주유소는 눈코 뜰새 없이 바빠졌다. 더불어 정식 직원으로 신분 상승이 되면서 밑에 알바를 두는 겸경사도 누리게 되었다.

“1년만에 알바 딱지를 떼고 1년이 더 지난 다음에 총무, 2년이 더 지난 입사 4년만에 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소사장님 바로 밑이었죠. 이용객이 많아서 제가 밑에돈 직원수만 7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그 바닥에선 입지전적의 스

토리였죠(웃음).

탄력받은 영업력으로 주유소 실적은 나날이 높아져만 갔다. 그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군산 직영점 또한 덩달아서 전국에서 알아주는 영업소가 되었다. 어느해인가는 본사에서 선정하는 경영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직영주유소를 선정·포상 수상식에서 ‘판매 부문’, ‘고객만족경영’, ‘손익부문’ 3개의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로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기적은 스스로 돕는자에게 일어난다. 노력한 만큼 보상으로 돌아오기에 그에게 있어서 주유소 업무는 매일 매일 행복 그 자체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많은 만족감을 줄수있나?’ 라는 생각뿐 이었다.

“기자님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낭떨어지 보다 더한 곳에 떨어진 상황이었는 데 먹고살 원천을 제공해주니깐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 간절함이 저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한 거 같습니다.”

소장으로 승진을 했음에도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그는 주유소 이용객들에게 아우라 넘치는 손짓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를 환한 미소와 함께 연신 외치고 있었다.

차 외관에 오염이 묻어있는 차가 오면, “손님 차 외관에 먼지가 좀 낀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닦아드리면 손님께서 행복하실까요? 고객이 행복하면 제가 더 행복할것 같아서요.”

매일 매일 손님들에게 하는 멘트였지만, 통상적인 그 멘트 하나로 그날은 그에게 매우 기적 같은 날이 되었다. 정산을 마치자 소사장이 그를 불렀다.

“자네의 특별함이 우리 주유소를 크게 격상시켰네.. 나도 몰랐는데 오늘 오전에 본사 암행반에서 우리 주유소를 다녀갔나봐... 인상 착의를 언급하면서 상냥하고 밝은 인사성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이야... 본사 직원들에게 친절교육 좀 시켜달라고 해야겠다면서, 그 직원이 누구인지 물길래 ‘송성희 소장’ 이라고 밝혔네. 이번 개인 수상 하면 크게 한턱 쏘게”

소사장에게 격려를 받고선 사무실에서 나왔다. 눈물 밥 4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4년간의 남모를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그였다. 아버지 사업 망하고 울고 딱 4년이 흘러 다시한번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서러운 눈물이 아닌 기쁨에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1년후 본사 암행반의 추천으로 소사장이 되었다. 알바로 시작하여 본사에서 임명한 소사장, 그것도 전북지역 최연소 소사장, 용돈만 벌고자 시작했던 알바생이 소사장이 된 것이다.(※알바생에서 직영점 소사장으로 임명된 경우는 전무후무 함)

그는 인터뷰중에 ‘간절함’ 이란 단어를 자주 썼다.

“간절함이 소사장 까지 올라가게 된 이유죠. 아무리 어려워도 삶에 대한 간절함 만 있으면 못할게 없다고 봅니다.”

소사장이 된후 직영주유소 2개를 직접 관리를 했다. 하지만 주유소가 많이 늘어나고 셀프주유소 등장으로 미래의 먹거리로서 전망이 어두울 것을 예감하고 사직서 제출후 과감히 이직을 했다.

아웃소싱업체로 이직을 하다.

잘 나가던 직장에서 사직 전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을 했지만 아내는 이내 못마땅해 했다.

“왜 잘 나가던 직장을 스스로 나가려 하느냐? 남들은 나가라고 등떠밀어도 안 나가려고 버티는데 왜 당신은 스스로 사직서를 내려 하느냐?”

이미 마음속에 결정한 것에 대해서 미련은 없었다. 그보다는 미래의 확실한 먹거리를 찾고 싶었고 자신 또한 충만했다. 어렵사리 아내를 설득한 성희씨는 자신이 이직할 곳에 바로 재취업을 했다.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유독히 좋아한 그가 선택한 직종은 바로 아웃소싱업이었다.

아는 지인이 운영을 하는 아웃소싱업체, 경험은 없었지만 능숙하게 사람을 다룰수 있는 성격이 빠른 적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아웃소싱업은 고객이 원하는 스킬 인력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신속하게 모집을 할 수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이 업계에서 일정한 경험으로 초기에 제가 할 수있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맺기 였습니다. 저희 업계의 종사자들은 비정규직 이기 때문에 더욱 관계맺기에 신경을 쓸수밖

에 없습니다. 그분들 고충을 들어줄때도 진심을 다한 따스한 가슴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따스한 가슴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기자의 질문에 그가 답을 했다.

“기자님 결혼 하셨죠. 아내분 처음 애인으로 만났을때 기분이 어땠나요? 무척이나 설레고 조심스럽고 사랑스럽고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주고 싶을만큼 소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따스한 가슴이란 바로 사랑하는 사람 만날때 그 기분을 말하는 겁니다(웃음).”

소중한 마음으로 따스하게 그들의 말을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맺기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성희씨, 인력 파견업체에서 또 다시 그는 자신만의 로드맵을 만들어 나갔다.

이젠 내 사업이다

주유소 직원으로 12년, 아웃소싱업 직원으로 4년 도합 16년을 남의 밑에서 일을 했다. 16년 간의 직장 생활은 홀로서기를 하는데 밑천이 되었다. 내 사업을 하는데 설득을 해야하는 대상은 당연히 아내였다. 2번의 직장생활에서 성희씨는 아무지게 조직을 이끈 경험을 해본터라 그의 아내는 순순히 홀로서기를 응원해주었다.

“2015년 초반에 내 사업(2015년 (주)아람컴퍼니 설립·육가공 아웃소싱)을 하겠다고 했을때 누구보다 더 제 아내의 응원이 컸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실은 아내가 강력히 말리면 남의 밑에 계속 있으려고 했지요(웃음). 십수년간 가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

한것이 홀로서는데 적극적으로 응원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요?”

아웃소싱업은 그에게 매우 적합한 업종이었다. 통상적으로 아웃소싱업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패가 갈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들과 다른 그의 가장 큰 장점인 배려를 통해서 직원들과 믿음을 공유 한다는 것이다.

홀로서기를 할때 그가 다짐한게 있었다. ‘1개를 더 갖기 위해서 직원 뚫을 뺏지 말자.’ 경영 하면서 누구나 원칙을 세우는 게 있을게다. 1개를 더 갖는 것이 경영진의 욕심이 아니던가.

“아웃소싱업 경험 4년을 통해서 나를 성공했다고 자부 합니다. 바로 인맥관리 였는데요. 내 사업을 하겠다고 하자 그 동안 쌓아왔던 인맥이 잘 가동 되더라구요(웃음). 뭘 원해서 관계형성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쌓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 주변 지인들이 도와주겠다고 발 벗고 나선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나름 계획 했던 대로 현재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생활은 삶의 활력소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다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체는 사회적기업으로 만드는 것이고 저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군산 수송동 소재 평안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맡고있는 성희씨, 교회를 다니지 십수년이 되었지만 믿음이 없었던다. 그러나 사업초기 그의 아내와 다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주일학교에서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교사 직



분을 받았다.

“기자님 혹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교사 직분을 받으니까 없는 믿음도 생기더라구요(웃음). 그동안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장난끼가 많은 아이들, 웃음을 잃어버린 아이들, 모범생 스타일, 끼가 넘치는 아이들 등.. 다양한 아이들요.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사회적으로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생활은 회사를 이끌어 가는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이끌다 보면 화가 퍽 밀까지 끓어 오르는 상황이 가끔씩 있거든요. 주일 마다 아이들과의 만남이 확실하게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웃음).

(주) 아람컴퍼니 송성희 대표, 왜소한 체격이지만 그가 작은 거인과 같다고 느껴지는 것은 기자만의 느낌일까.

수학영재 주산·암산 신동

구암초등학교
정민규 군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귀엽고 자그마한 체구에 아직 아기 티도 가지지 않은 구암초등학교 5학년 정민규 군의 앞에는 전자계산기의 달인이라는 모 은행의 계장이 앉아 있다. 민규의 앞에는 주판이, 계장의 앞에는 전자계산기가 놓여 있다. 이 대결을 주관한 모 방송 PD는 백만 단위 숫자들을 빠르게 불러간다. 계장은 신들린 듯한 손놀림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민규는 불러주는 숫자에 집중할 뿐 주판엔 손도 대지 않은 채 초롱한 눈매로 PD를 응시할 뿐이다. 아무리 머릿속 주산으로 암산한다지만 계산기를 이겨낼 것 같지 않은 미심쩍음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윽고 끝나기가 무섭게 한 치 오차 없이 정답을 적은 건 민규. 계산기를 두드리던 은행원은 멍쩍어하며 항복을 선언했다. 하지만 PD는 두 번째 테스트를 제안했다. 그가 민규를 데리고 간 곳은 시내 모 대형마트. 몇 만원에서부터 몇 백만 원까지 가격도 제각각인 전자제품매장에서 그 수많은 제품 가격을 단 한 번 지나치면서 순식간에 합산총액을 내보라는 것이었다. 이 역시 민규는 막 바로 답을 말했고 확인해본 결과 한 치 오차 없는 정답이었다.



민규가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한 건 작년 8월31일. 각 분야 최고 수준의 영재 발굴프로로 개설되어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이 방송에서 민규는 주산과 호산(呼算/불러 주는 숫자를 받아 하는 계산), 플래시암산(화면에 빠르게 돌발 표시되는 숫자의 계산) 등에 있어 가히 신동임을 만천하에 입증하고 변이경기로 치른 계시암산(적혀 있는 숫자의 계산)에서도 선생님과 가족, 친지는 물론 전국의 시청자를 놀라게 했다.

민규의 어머니인 강경자 씨에 따르면 민규의 주산·암산 교육은 어린이집 다닐 때 시작,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나운동 소재 '한국나노주산암산학원'(원장 박광기)에서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한다. 그때만 해도 민규 역시 여느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고 볼링장이나 엄마 따라 짬질방도 즐기는 등 티 없는 철부지였기 때문에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게 사실인데 초등2학년 때 서울의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전국주산암산경기대회 및 대한민국 랭킹 전에 첫 출전, 2,3학년 부에서 당당히 암산 신동 3위에 입상하고 전국 랭킹 10위 안에 드는 실력을 과시하여 내심 놀라고 뿌듯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4년도 국가대표 주산암산 상비군선발대회 및 중국에서 개최된 세계주산심산(心算)대회에서 개인전 1등과 함께 미장초등학교 암산영재 김주안 군과 둘이서 출전한 단체전에서도 1위에 입상하는 기염을 토하고, 2015년도 세계청소년 마인드스포츠대회 등 각종 수학경시대회에 4년 째 출전하면서 기량을 더해갔는데 특히 플래시암산부문에서는 전국대회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낼 만큼 재능이 특출해 방송에 출연하게 된 것도 지도 선생님인 박광기 원장 추천으로 이뤄진 것이다. 박 원장은 관련 책자도 많이 발간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만도 수십 회에 이르는 그 방면의 권위자로서 일찍이 민규의 재능을 알아보고 영재 지도를 해왔던 것인데 그 기대에 부응하듯 민규를 통해 학원의 명성이 명불허전임을 증명하는 부수적 효과도 톡톡히 거둬으로써 보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규의 실력이 방송과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타며 알려지면서 강경자 씨 역시 가만있을 수만은 없었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말처럼 엄마로서 아들의 암산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가정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시도했다. 예컨대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들 수십 대의 번호판 숫자 합을 순식간에 계산케 한다든지, 초시계를 들고 계산 시간의 단축 훈련을 시킨다든지, 마트에서의 생필품 쇼핑 뒤 단번에 총액을 산출케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능을 북돋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봤는데 그토록 어렵고 복잡한 계산도 민규에게는 마치 쉽고 즐거운 놀이처럼 보였다. 그래서인지 민규는 영재들만 간다는 카이스트 대학생들과의 계산 시험에서도 월등한 재능을 과시하여 그들의 혀를 내두르게 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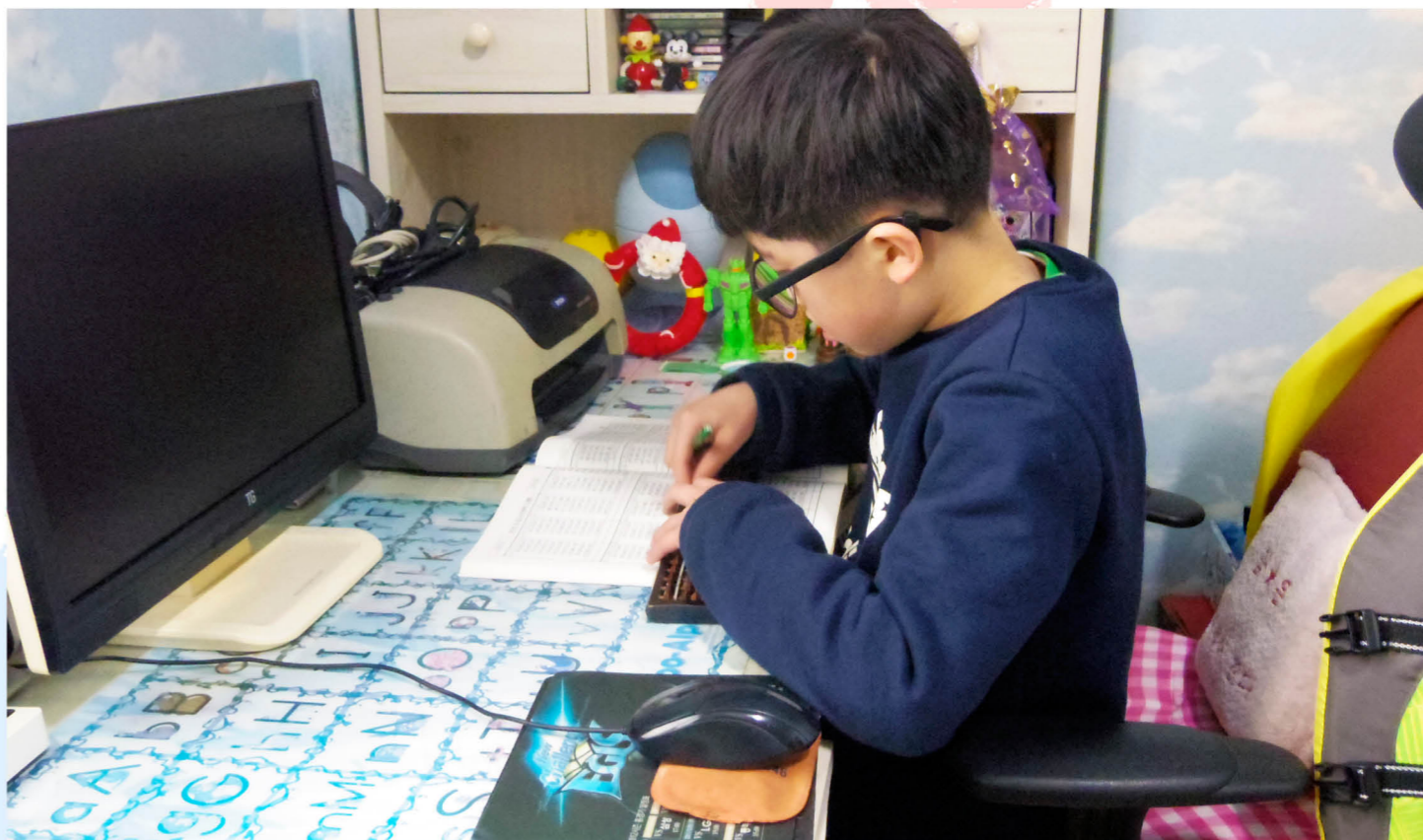
구분	110	111
1	24,502,899	45,292,504
2	24,502,899	45,292,504
3	24,502,899	45,292,504
4	24,502,899	45,292,504
5	24,502,899	45,292,504
6	24,502,899	45,292,504
7	24,502,899	45,292,504
8	24,502,899	45,292,504
9	24,502,899	45,292,504
10	24,502,899	45,292,504
11	24,502,899	45,292,504
12	24,502,899	45,292,504
13	24,502,899	45,292,504
14	24,502,899	45,292,504
15	24,502,899	45,292,504
16	24,502,899	45,292,504
17	24,502,899	45,292,504
18	24,502,899	45,292,504
19	24,502,899	45,292,504
20	24,502,899	45,292,504
21	24,502,899	45,292,504
22	24,502,899	45,292,504
23	24,502,899	45,292,504
24	24,502,899	45,292,504
25	24,502,899	45,292,504
26	24,502,899	45,292,504
27	24,502,899	45,292,504
28	24,502,899	45,292,504
29	24,502,899	45,292,504
30	24,502,899	45,292,504
31	24,502,899	45,292,504
32	24,502,899	45,292,504
33	24,502,899	45,292,504
34	24,502,899	45,292,504
35	24,502,899	45,292,504
36	24,502,899	45,292,504
37	24,502,899	45,292,504
38	24,502,899	45,292,504
39	24,502,899	45,292,504
40	24,502,899	45,292,504
41	24,502,899	45,292,504
42	24,502,899	45,292,504
43	24,502,899	45,292,504
44	24,502,899	45,292,504
45	24,502,899	45,292,504
46	24,502,899	45,292,504
47	24,502,899	45,292,504
48	24,502,899	45,292,504
49	24,502,899	45,292,504
50	24,502,899	45,292,504
51	24,502,899	45,292,504
52	24,502,899	45,292,504
53	24,502,899	45,292,504
54	24,502,899	45,292,504
55	24,502,899	45,292,504
56	24,502,899	45,292,504
57	24,502,899	45,292,504
58	24,502,899	45,292,504
59	24,502,899	45,292,504
60	24,502,899	45,292,504
61	24,502,899	45,292,504
62	24,502,899	45,292,504
63	24,502,899	45,292,504
64	24,502,899	45,292,504
65	24,502,899	45,292,504
66	24,502,899	45,292,504
67	24,502,899	45,292,504
68	24,502,899	45,292,504
69	24,502,899	45,292,504
70	24,502,899	45,292,504
71	24,502,899	45,292,504
72	24,502,899	45,292,504
73	24,502,899	45,292,504
74	24,502,899	45,292,504
75	24,502,899	45,292,504
76	24,502,899	45,292,504
77	24,502,899	45,292,504
78	24,502,899	45,292,504
79	24,502,899	45,292,504
80	24,502,899	45,292,504
81	24,502,899	45,292,504
82	24,502,899	45,292,504
83	24,502,899	45,292,504
84	24,502,899	45,292,504
85	24,502,899	45,292,504
86	24,502,899	45,292,504
87	24,502,899	45,292,504
88	24,502,899	45,292,504
89	24,502,899	45,292,504
90	24,502,899	45,292,504
91	24,502,899	45,292,504
92	24,502,899	45,292,504
93	24,502,899	45,292,504
94	24,502,899	45,292,504
95	24,502,899	45,292,504
96	24,502,899	45,292,504
97	24,502,899	45,292,504
98	24,502,899	45,292,504
99	24,502,899	45,292,504
100	24,502,899	45,292,504

강경자 씨는 민규의 별명을 해리포터라 지었다. 총명하면서도 안경 낀 모습이 닮았다고 느낀 것인데 앞으로도 민규의 재능이 더욱 진화 발전될 수 있도록 엄마로서 최선을 다할 작정이다. 또한 민규의 누이동생으로 구암초등 3학년생인 정다운 양도 암산에 재능이 뛰어나 현재 피아노와 더불어 주산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강경자 씨는 자녀들이 매사 신중하면서도 계산적인 자신의 성격을 조금쯤 닮은 것 같이라며 민규의 경우 학교 공부도 뒤지지 않도록 학원에도 보내고 있다. 장래 세계적으로 수학 영재의 교육이 선진화된 일본 도쿄대학에의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다. 그러자면 일찍부터 일본어도 공부해야 될 테고 이에 따른 교육비 역시 만만찮은 부담이 될 터여서 머잖은 시기에 기왕 가진 자격증도 있는 만큼 미용실을 개업해볼 생각이다.

은이 모두 언젠가 자신의 분야에서 크게 성장하여 이름을 떨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면 부모로서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냐며 웃는 강경자 씨의 모습에서 남모르는 행복이 묻어나는 듯도 하다.*

민규는 올 6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김일곤 배 전국대회 출전에 대비 중이다. 강경자 씨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자라는 자녀들이 너무 대견해 뒷바라지에 전혀 힘든 줄을 모르겠다며 아이들이 모두 학교나 학원에 가고 난 뒤엔 틈틈이 책을 읽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음악을 즐겨 듣거나 산책을 다녀오기도 한다. 아직은 철부지인 민규와 다

한국나노주산암산학원
군산시 나운안길27(강천상가205호)
063)451-0226~7 / 박광기 원장 HP.010-5578-7080





말 타고 싶어서
교사 그만둔 사람의

‘미친’ 꿈

안정된 직장을 나온 사람들 ①
피터팬 승마장 김경환

글 | 배지영(시민기자) okbjy@hanmail.net
사진 | 진정석 jin0101@hanmail.net

“종사관 나리!”

드라마 <대장금>에서 장금이(이영애)는 민정호(지진희)를 부르곤 했다. 그때, 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 여학생들은 막 체육교사로 부임해온 김경환씨에게서 ‘종사관 나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말했다. 모여 있는 아이들은 수줍음을 타지 않는다. 대놓고 “대박! 체육 선생님 완전 지진희야”라고 했다. 좋다는 표현을 격하게 해주었다.

체육교사가 되기 전, 경환씨는 작은아버지의 회사에 다녔다. 수많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총괄하는 주택관리 회사였다. 그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관리하면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을 했다. 일은 금방 손에 익었다. 월급도 넉넉하게 받았다. 좋은 직장이었다. 그러나 경환씨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맞나’ 생각해 보고는 했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는 교육 대학원에 다녔어요. 원래 꿈이 교사였거든요. 석사학위 받고는 사립학교 체육교사가 되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좋았죠.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안 좋았던 점이 거의 없었어요. 인기 많은 교사였죠. 그래도 100세 시대니까 ‘정년퇴직 하고 뭐 할까’ 생각하긴 했죠.

어느 날, 불현듯 인터넷 검색해서 전주에 있는 승마장에 갔어요. 말 타는 게 어릴 때 로망이었거든요. 처음 탈 때는 무섭더라고요. 말이 제 눈높이보다 위에 있으니까요. 근데 타면 탈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일로 삼고 싶더라고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주저하지 않았어요. 교사 그만둔다니까 다들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안정된 직장 그만둔다고요.”

2012년 봄, 마흔한 살 경환씨는 전주 기전대학 마사과로 진학했다. 11년간의 교사생활을 정리하고서, 달마다 꼴처럼 들어오던 월급은 끊겼다. 군산 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일하는 아내 심은영씨는 “당신 하고 싶은 일 해”라고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동안 들어놓은 적금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생활을 했다. 대학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경환씨는 갓 스무 살이 된 동기들과 같이 말먹이를 주고, 말똥을 치우고, 말을 씻겼다. 말은 어느 부분이 민감하고 둔감한지를 알았다. 재갈 물리는 법, 조련하는 법, 말의 질병과 근육을 배웠다. 말은 어떻게 장애물을 넘고 원을 도는지를, 책으로 배우고 몸으로 익혔다. 말 타는 훈련도 체계적으로 해서 승마대회에 출전했다.

“대회에 나가려면 평균 30-40만 원이 들어요. 학교에서 빌린 말을 운반해야 하거든요. 시험용 흰 바지도 사서 입고요. 그 큰 시험장에 말하고 저만 있는 거예요. 관중들은 밖에 있고요. 1번 장애물을 넘고 2번 장애물로 가야 하는데 코스를 잊어버릴 정도로 떨죠. 더구나 말은 겁이 많고, 환경에 민감해요. 주변이 시끄러우면 많이 예민하죠. 그래도 다음 경기에 또 출전해요. 좋으니까요. 내 말의 상태는 숨소리만 들어도 알만큼 교감도 되고요.”

2년간 마사과에서 공부하고 일을 배운 학생들은 취업 걱정을 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산업부에서 주관하는 재활승마 지도사와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승마 교관으로 일하기 때문이다. 자격증을 못 딴 사람들은 말 관리자로 일하면 된다. 마사과 졸업생들은 수도권에 있는 100여 곳의 승마장으로 취업을 나간다.

경환씨는 마흔세 살에 기전대학 마사과를 졸업했다. 재활승마 지도사 자격증과 생활체육승마 지도사 자격증을 딴 그는 정읍에 있는 한 승마장을 찾아갔다. 말 생산까지 겸하는 곳이었다. 경환씨는 그곳에서 말에 대한 실무를 더 익히고 싶었다. 그래서 마방의 말똥을 치우고, 말을 돌보며 시간을 보내고, 체험 온 학생들에게 승마 가르치는 일을 했다.

“승마는 유일하게 동물과 교감하며 즐길 수 있는 스포츠예요. 수영과 승마는 선진국형 스포츠로 꼽히기도 하고요. 노년에는 관절이나 근육 상태가 약해지죠. 할 수 있는 운동이 줄어들어요. 수영은 부력이 생기니까 몸무게를 커버해줘요. 승마도 지표면을 밟지 않고, 중력에 의해서 하는 운동이죠. 말과 관련된 직업은 향후 10대 블루오션이에요.”

유럽에서는 승마가 의료보험도 돼요. 교통사고 환자한테 재활승마 치료로 쓰이거든요. 곳곳한 자세로 말을 타면 근력이 강화돼요. 척추가 펴지는 신체교정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장운동이 돼서 숙변 제거도 되고요. ADHD나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말을 타면,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요.”

경환씨는 자신의 승마장을 운영하고 싶었다. 몇 곳의 컨설팅 회사에서는 “승마장은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요. 본업으로 삼지 말고 세컨드 잡으로 하세요”라는 냉정한 분석을 해줬다. 맞는 말일 수밖에 없다. 말은 많이 먹는다. 말 한 두당 한 달에 40-50만 원 어치의 먹이를 먹는다. 생체시계가 정확해서 제때 먹이를 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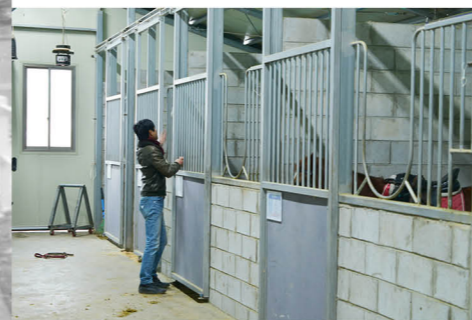
말은 발톱도 잘 자란다. 전문 장제사가 5주에 한 번씩 와서 발톱을 깎아줘야 한다. 말이 달리면 편자도 닳는다. 말 한 두당 발톱 손질하고, 편자를 붙여 달귀서 맞춰 끼워주는 비용이 10만 원이다. 말들은 똥오줌을 가릴 줄 모르니까 마방에 깔아놓은 '깔짚'에 대소변을 누다. 파리가 들끓지 않게 날마다 깔짚을 걷어내고 새로 깔아줘야 한다.

“주저하면 멋진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경환씨가 가슴에 품고 다니는 말이다. 승마장은 경환씨에게 '멋진 일', 반드시 하고 싶었다. 그는 꼼꼼하게 준비했다. 2011년에 '말 산업 육성법'이 제정된 상태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과 광우병으로 고통 받는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서 말 사육을 지원했다. 말 산업 육성법은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지원한다. 경환씨는 그 사업에 응모했다.

“저희 승마장은 군산에서 유일하게 인허가 받은 승마장이예요.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안전보험이라고 하는 승마 보험도 따로 들어야 해요. 허가가 나와 말마다 보험을 들 수 있거든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적당해야 하고, 말은 세 마리 이상 있어야 하고, 냄새가 안 나야 하고, 주변에 민원사항이 없어야 해요. 저희는 말 열두 마리가 있어요.”

2015년 10월, 경환씨는 '피터팬 승마장'을 열었다. 농림부와 전라북도, 군산시청에서 예산의 40%를 지원받았다. 나머지는 또 빚을 졌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고, 친척들에게도 빌렸다.



땅을 사고, 마방과 승마연습장을 지었다. 그리고는 '승마는 부자들이나 하는 스포츠'라는 벽과 마주했다. 비용을 대폭 낮추고는 그 편견을 허물고 있다.

정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전국의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승마체험 학생을 모집해 왔다. 말 타는 횟수는 열 번, 비용은 30만 원이다. 그 중에 학생 부담금은 9만원, 21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서울과 수도권은 지원학생이 많아서 경찰 입회하에 뽑기를 한다. 이웃도시 익산도 승마장은 네 곳, 군산 학생들도 이제 승마장에서 말을 타볼 수가 있다.

“저는 군산에 승마장을 열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교통사고 나서 물리치료 대신 승마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몸의 근력과 근육, 골격은 말을 타면서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으로 인체의 생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특수학교 학생들은 정서상으로도 말을 타면 큰 효과가 있어요. 재활승마는 나라에서 100% 지원해주고 있고요.”

군산 시내에서 승마장까지 15분 걸립니다. 접근성이 좋잖아요. 충남 서천이나 장항 학생들도 지원을 받아서 와요. 지금은 군산 유소년 승마단 준비를 마치고 마사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군산의 작은 학교 학생들은 장기 프로그램을 밟으며 말을 타고 있어요. 정부 지원을 받아서요. 저는 군산의 많은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하면서 말과 교감하면 좋겠어요.”

경환씨는 승마장에서 일하는 두 명의 정직원과 같이 마방을 청소하고, 말을 돌본다. 어떤 이들은 “왜 교사 그만두고 힘들게 노동을 하느냐”고 묻는다. 그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설득되지 않을 주제. 경환씨는 “내가 생각해도 미친 것 같아”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미쳐야 이를 수 있는 일들이 있잖은가. 경환씨는 오래도록 말에 미쳐 있고 싶다고 했다.

서양의 나그네들이 하룻밤 묵어가던 곳은 마구간이었다. 말은 사람보다 체온이 3-4°C 높아서 따습다. '들장미 소녀 캔디'는 아예 마구간에 침대를 두고 살았다. 예민한 말을 돌보고 교감한 덕분에 그녀는 마성의 매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다. 승마는 기본적으로 말과 친해야 즐길 수 있는 것. 그러려면 먼저 나 아닌 다른 생명체를 돌볼 줄 알아야 한다.

경환씨는 몇 번이나 “필드에 나가서 골프 치는 것보다 승마가 저렴해요”라고 강조했다. 한 달 27만 원, '최순실 딸'만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승마장을, 동화 <피터팬>에 나오는 '네버랜드'처럼 만들고 싶다. 간절한 꿈이다. 방목장과 게스트하우스, 그 옆에서 말이 한가롭게 풀 뜯는 대자연. 그곳에는 경환씨의 '미친' 열정이 가득할 것이다.

피터팬 승마장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128
063-453-9971 / 010-3689-8272





국악의 꽃 ‘부채춤’ 한자리에 모이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부채춤은 군산 ‘소화권번 부채춤’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신명숙, 박은미, 전민지 등이 재연한 권번 부채춤

옛날 선비들은 대나무 돛자리에 묵침을 베고 누워 죽부인을 안고, 부채(扇)를 부치면서 더위를 이겨냈다. 이처럼 다양한 여름 피서용품 중 때와 장소, 나이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사용된 게 부채였다. 자신이 선호하는 그림과 글귀를 써넣고 접었다 펼쳤다 하면서 멋과 풍류를 즐겼던 부채는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의식용으로 쓰였으며 모양과 장식 등 종류도 다양했다.

부채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처음 등장한다. 후백제 견훤이 고려왕으로 등극한 왕건에게 선물로 공작 깃털로 만든 공작선을 보냈던 것. 이는 견훤이 왕건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오월 단오에 부채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으며, 민요에도 ‘가을에 곡식 팔아 첩을 사고 오뉴월 되니 첩 팔아 부채 산다’는 대목이 나온다. 선 풍기나 에어컨이 없던 시절 여름에 최고 필수품이 부채인 것을 풍자한 것이다.

‘부치는 채’라는 말이 줄어 이름을 얻었다는 ‘부채’. 특히 부채와 소리꾼은 실과 바늘 사이로 알려진다. 소리꾼의 발림(너름새) 동작에 필요한 부채는 시각적인 효과를 더하면서 이면에 따라 달라진다. <춘향가>에서는 암행어사 이몽룡의 얼굴 가리개가 되고, <심청가>에서 심 봉사가 걷는 모습을 노래할 때는 지팡이가 된다. <흥부가>에서 흥부가 박 타는 모습에서는 톱이 되고, <적벽가>에서 조조가 활시위를 당기는 대목에서는 화살이 되기도 한다.

한국의 부채춤 한자리에 모이다

부채는 무용에서도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화려한 의상과 경쾌한 민속악 반주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부채춤이 그것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국민 환영행사를 비롯해 올림픽, 월드컵대회 등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장에서 극찬받았던 부채춤 공연에서 잘 나타난다. 대부분 전문가는 부채를 접고 펼 때 마찰음, 부채의 포물선, 한복의 아름다운 곡선과 무용수들의 생동감 넘치는 기동인(起動因) 등을 부채춤의 진수로 꼽는다.

‘국악의 꽃’이란 이름을 얻으면서 한국을 상징하는 춤으로 자리매김한 부채춤. 이 춤사위는 1954년 한국무용의 대가 김백봉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무속에서 무녀들이 추는 고운 춤동작과 굿의 신명을 궁중무용 춤사위에 결합하여 생동감 넘치는 작품으로 탄생시킨 게 오늘날 통용되는 부채춤이다. 한동안 독무 형태로 무대에 오르다가 1968년 멕시코 세계민속예술제전에서 군무(群舞) 형식으로 재구성됐다 한다.

기자는 권번 부채춤(신명숙), 북한 부채춤(최신아), 신 부채춤(홍은주), 김백봉류 부채춤(장인숙), 오방 부채춤(홍경희) 등 다섯 가지 부채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기회가 있었다. 지난 15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안국빌딩 4층(W스튜디오 안국)에서 열린 제15회 교수작품발표회(주최: 대진대학교 무용학부/ 주제: <춤, 부채로 말하다>)에 다녀온 것.

이날 발표회는 그동안 막연히 알고 있던 부채춤뿐만 아니라 의외로 다양한 형태의 부채춤이 전승되고 있음을 무용가들의 춤사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북한 부채춤은 이날의 백미로 많은 찬사를 받았다. 일제강점기 군산 소화권번에서 동기(童妓)들에게 가르쳤던 '권번 부채춤'이 지금까지 알려진 부채춤 중 가장 오래됐다는 것도 확인했다.

아래는 발표회가 끝나고 있었던 관객들과의 대화에서 출연자들 설명, 행사 팸플릿, 그리고 공연을 관람하고 느낀 기자의 생각 등을 공연 순으로 정리하였다.

권번 부채춤

국내 유일의 민살풀이(수건 없이 추는 살풀이춤) 전수자 장금도(1928~) 명인이 열서너 살 때 군산 소화권번에서 익힌 춤이다. 이날은 신명숙 교수와 그의 제자 박은미 전민지 등 세 사람이 출연했다. 장 명인은 이 시대 마지막 예기(藝妓)로 그가 처음 배울 때는 부채에 국화, 매화, 산수화 등이 그려져 있었고, 춤은 두 사람 이상이 앉아서 시작했다.

안정감과 부드러움 그리고 담백하면서 예술적인 면이 돋보이는 게 권번 부채춤의 특징이다. 본래 장단은 자진모리였으나 타령장단에 맞춰 추기도 한다. 장 명인은 소화권번에서 스승의 춤을 엿보다가 들킨 것이 계기가 되어 배우게 됐다고 회고한다. 일제강점기 소화권번은 부채춤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동기에게만 가르쳤다 한다. 소화권번에서 춤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 과목이었던 것.



군산 소화권번 주식회사 창립 5주년 기념 단체사진(1939년 촬영)을 보면 각종 예복 차림에 화관, 패랭이, 흰 고깔 등을 머리에 쓴 귀여운 동기 열한 명 모습도 보인다. 이는 일제강점기 소화권번에서 화관무, 승무, 검무, 포구락, 부채춤 등 다양한 전통 무용을 가르쳤음을 시사한다.

권번 부채춤은 장 명인이 유일한 전수자가 된 이후 함께 연행(演行)할 상대가 없어 기나긴 세월을 묻혀 있었다. 그러다가 1999년 신명숙 교수가 장금도 명인을 스승으로 모시고 춤을 사사하던 중 춤사위를 발견하고 연구 끝에 재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부채춤으로 조선 시대 교방춤(교방무)과 가장 근접한 춤사위로 평가받는다.

북한 부채춤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한 최신아 감독에 의해 소개됐다. 최 감독은 신명나는 춤사위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머리에 패랭이를 쓰고 한 손에만 부채를 쥔 모습도 이색적이었다. 몸짓 하나하나가 무척 천진스럽고 아기자기하게 다가왔다. 표정과 몸짓에서 장난기도 엿보였다. 그럼에도 춤사위는 무대가 좁게 느껴질 정도로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했다.

최 감독은 함경북도 예술단 무용 감독으로 활동하다가 2012년 입국했다. 지금은 라온 최신아예술단 무용 감독을 맡고 있으며 KBS 국악한마당, 국악방송, 기관과 기초단체 행사 등 다양한 국악프로그램에서 약방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 감독은 “북한 부채춤은 최승희 선생 작품으로 혁명성과 대중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 한다”고 부연했다.



신 부채춤

한수경 무용가가 출연한 이 작품은 화려하면서도 단정하게 느껴졌다. 특히 전통적인 긴 호흡과 동시대적인 맥박, 그리고 한복에서 느껴지는 우아한 선의 아름다움과 모던한 자연미가 돋보였다. 안무를 맡은 홍은주(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리움무용단 단장은 “기존 부채춤과 차별화하여 꽃잎의 화려함을 다양한 음색으로 승화해 냈다”고 소개했다.

‘위커힐예술단’ 무용 감독을 역임했던 홍 감독은 “신 부채춤은 2008년 SK 위커힐 예술단 상설공연 <동방의 빛> 중에서 초연됐던 춤”이라며 “따사한 봄날 물에서 노니는 꽃잎의 여정을 부채의 다양한 언어로 풀어낸 작품으로, 외국 공연에서도 찬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백봉류 부채춤

장인숙 전 전북대학교 무용학부 교수가 출연한 이 작품은 가장 널리 알려진 신무용으로 선율과 춤동작이 어디선가 많이 듣고 본 듯한, 그래서 가장 친근하고 익숙하게 느껴졌다. 기억을 더듬어보니 60~70년대 시골학교 운동장에 설치한 야외무대와 극장에서 상영했던 대한뉴스, TV 국악프로그램 등에서 신명나게 봤던 그 춤이었다.

양손에 쥔 커다란 부채를 펼치고 접을 때 파생하는 경쾌한 마찰음과 단아하고 우아한 절제미, 화려한 의상 등이 어우러지면서 고전적인 중후함, 유연함 등이 함께 느껴졌다. 화사한 꽃 그림이 들어간 부채가 춤사위의 소도구나 보여주기 위한 장신구가 아니라 주제임을 강조하는 작품이었다.



부채춤은 우리나라 무용 예술이 서양식 무대로 옮겨지면서 발생하는 시대적 사상과 형식의 변모 과정을 거쳐 1954년 김백봉에 의해 예술적으로 새롭게 창출된 작품이다. 한국의 부채가 갖는 멋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살려낸 부채춤은 창작자인 김백봉의 예술관과 우주관이 가장 집약된 작품으로 2014년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됐다.

오방 부채춤 벽사진경의 부채춤

머리에 건을 쓴 옷차림에서 느껴지듯 일반 백성과 가장 가까워서 행해지던 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홍경희 한국춤문화포럼 대표겸 예술감독이 재연한 이 작품은 생동감 넘치는 춤사위와 오방(五方)을 상징하는 파란색(동쪽), 흰색(서쪽), 붉은색(남쪽), 검은색(북쪽), 노란색(중앙) 등의 화려한 의상이 시선을 끌었다.



이 춤은 요사스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한다는 뜻이 담겨있어 ‘벽사진경(辟邪進慶)의 부채춤’으로도 표현된다. 무녀가 부채를 손에 쥐고 가무하는 모습은 신윤복의 무녀도(巫女圖)에서도 볼 수 있다. 무녀들이 언제부터 부채를 손에 쥐고 춤을 췄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꼭 필요한 소지품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화(붉은색), 수(검은색), 목(파란색), 금(흰색), 토(노란색)와도 관계있는 오방색은 단맛(토), 신맛(목), 쓴맛(화), 매운맛(금), 짠맛(수)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우리의 소리(궁·商·角·徵·羽)와 곡식(쌀, 보리, 콩, 조, 기장)과도 관련이 있어 음양오행 문화의 뿌리와 조상들의 사상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군산 소화권번 주석회사 창립 5주년 단체사진 (동기들의 귀여운 모습이 눈길을 끈다)

신명숙 교수는 관객과의 대화에서 “부채춤 전수자 및 이수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며 “한국의 부채춤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오늘 행사를 준비했다”고 작품발표회 의의를 밝혔다.

양질의 식자재, 올바른 공급

군산학교급식협동조합
이규영 회장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조합설립 배경

작년 9월 설립된 군산학교급식협동조합(이하 급식조합)은 관내 초,중,고교를 비롯하여 기업체, 병원, 골프장 등 다중 기관, 시설에 양질의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로 결성된 식자재 회원사들의 조직체다. 조합의 이규영 회장은 개인적 식자재 사업체인 일향유통의 대표이기도 한데 수산물, 축산물, 채소류, 김치류, 유가공 등 공산품을 취급하는 지역 내 30여개 업체가 뜻을 모아 최저입찰에 의한 손실경쟁과 대기업이나 외지 업체에 의한 시장 왜곡과 혼란을 막음으로써 자생력을 키우고 생존권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설립하게 된 것이다. 사실 급식납품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기존 거래처가 아니면 진입이 어려웠으나 김승환 교육감 취임 후인 6~7년 전부터 농산물유통공사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 바뀌어 랜덤방식으로 선정함으로써 누구라도 자격조건만 갖추면 납품이 가능하게 된 것도 조합설립의 고무적 배경이랄 수 있다.



정부의 HACCP(해썹) 친환경 인증 업체

이규영 회장에 따르면 납품 시 무엇보다 신경을 쓰는 부분은 친환경 품목으로서 철저한 위생관리를 거친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올바른 먹거리의 유통을 위해 해썹(HACCP) 인증제도(식약처에서 소비자 섭취 전까지의 전 과정 원료, 가공, 유통에 있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임을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수산물의 경우는 식약처, 육류는 농림수산부에서 관할한다. 해썹 인증을 취득한 식품업체는 정부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자격을 보유한 만큼 당연히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인증 자격 조건의 기계 설비 등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년1회 정기 점검에서 단 1회만 위생안전조항 위반으로 적발돼도 퇴출될 정도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규영 회장은 평소 조합원에게 식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비위생적 관리행위 등은 언제라도 조합에서 퇴출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불량식품으로 인한 단 한 건의 사고도 미연에 방지되도록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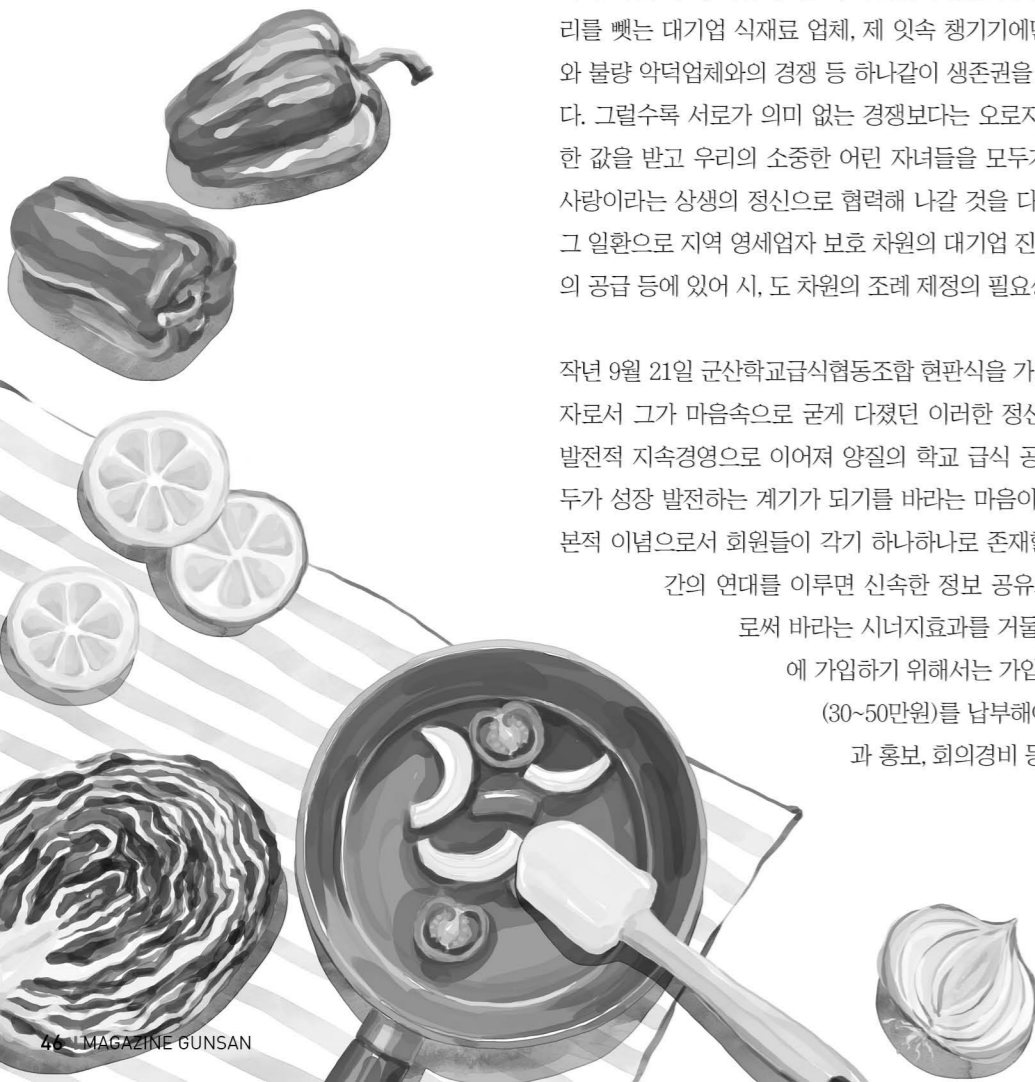
올바른 먹거리 공급은 소명이자 보람

급식조합에서는 관내 약 60여 각 학교별 입찰 공고와 낙찰에 의하여 필요 품목을 취합, 해당 식자재를 취급하는 급식조합에게 납품을 배정한다. 식자재 중 채소류에 있어 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친환경급식협동조합센터와는 수의계약으로 거래가 이뤄져 상대적으로 경쟁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급식조합으로서 동등 참여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있지만 지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 까다로운 규제도 뒤따르기 때문에 지원 신청을 배제하고 조합원들의 결속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간다는 방침이다. 간혹 학교 현장에서 불량 급식으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은 보건소 등의 역학 조사에 따르면 공급 원료의 문제라기보다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쓴다거나 학교 조리실의 비위생적 관리 등의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단 한 건이라도 간과할 수 없는 일로서 이윤을 따지기 이전에 무엇보다 양심적 소명감이 앞서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이규영 회장은 회원 업체들 공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설 투자를 늘려 왔고 양질의 먹거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인구 절벽에 따른 학교, 학생 수 감소, 비현실적 납품 단가, 지역 영세 업체의 설 자리를 뺏는 대기업 식재료 업체, 제 익숙 챙기기에만 급급한 일부 위장업체와 불량 악덕업체와의 경쟁 등 하나같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그럴수록 서로가 의미 없는 경쟁보다는 오로지 질 좋은 식재료를 정당한 값을 받고 우리의 소중한 어린 자녀들을 모두가 내 가족이라는 봉사 사랑이라는 상생의 정신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는 이규영 회장은 그 일환으로 지역 영세업자 보호 차원의 대기업 진입 배제, 친환경농축산물의 공급 등에 있어 시, 도 차원의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작년 9월 21일 군산학교급식협동조합 현판식을 가지면서 학교 급식의 책임자로서 그가 마음속으로 굳게 다졌던 이러한 정신이 군산학교급식조합의 발전적 지속경영으로 이어져 양질의 학교 급식 공급을 통해 회원 업체 모두가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는 조합 설립의 근본적 이념으로서 회원들이 각기 하나하나로 존재할 때는 힘들지만 동업자 간의 연대를 이루면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업체계가 갖춰짐으로써 바라는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신청서와 소정의 연회비(30~50만원)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는 조합교육과 홍보, 회의경비 등에 소요된다.



군산학교급식협동조합
 군산시 소룡안길 17
 일향유통
 063)445-6673





왼쪽부터 남민이, 이가령, 채영숙, 고보연, 문귀화, 고나영

원도심 이색 문화 공간 **따숨**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공간'따숨'의 탄생

따뜻한 숨결이라는 의미의 '공간 따숨'은 채영숙(서양화), 이가령(서양화), 고보연(서양화,설치), 문귀화(서양화), 고나영(서양화,설치), 남민이(남매네/조각,회화) 등 6명의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장미동 소재 미술단체인 '미술공간 채움'이 2015년 기획, 진행한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한 '사각지대블루스'를 통해 소수자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지리적 접근성을 갖춘 대안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6년 군산도시재생센터와의 협약으로 월명동에 마련한 원도우 갤러리 형태의 미니 문화 공간이다. 오랜 기간을 걸쳐며 지역의 쇠락을 면치 못했던 원도심

에서 낡고 쓸쓸하게 방치됐던 사무실을 위 6명의 예술가 중심으로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지금의 안락하고 반짝이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인데 인근의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근대미술관, 장미갤러리, 이당미술관, 예깊미술관을 비롯하여 창작문화공간여인숙, 산돌갤러리, 테디베어박물관과 등과의 지리적 연계성으로 관광객들을 통한 수입창출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의한 것으로 이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일환이기도 하다.

콘텐츠

'공간 따숨'을 통해 소수자문화예술의

사회적 확장을 꿈꾸고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전시공간을 통해 시민은 물론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문화예술의 향기를 선물하고 싶다는 6명의 작가들은 더 나아가 공간의 유지 및 활성화화를 위하여 지역 내 작가들의 아트상품과 소수자 아트 상품 개발에 힘을 써 소수자들의 문화적 활동을 고취, 홍보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상업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따숨에서는 오픈기념전인 '따숨' (7월1일)전을 시작으로 채영숙, 최경순 작가의 콜라보1/ 딸,그리고 어머니 (7월22일), 홍성미, 최춘기 작가의 콜라보2/가까이 또 가까이(8월12일), 남민이 작가의 콜라보3/이음(9월2일), 고나

영, 윤인선 작가의 콜라보4/오!친구(9월23일), 콜라보5/사각지대블루스(10월14일), 문귀화, 이종철 작가의 콜라보6/오른쪽 이야기(11월4일), 이가령 작가의 콜라보7/Treasure Story(11월25일), 고보연 작가와 폼지락미술동아리가 함께한 콜라보8/미술로 이어진 언어(12월16일) 등이 펼쳐진바 있다.

따숨책 이야기

소수자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아울러 그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풀어나갈 방안을 모색하던 따숨의 작가들이 선택한 것 중 하나는 감각책(感覺冊). 시각장애인의 외부 세계 물리적 형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것이 촉각북이라면, 감각책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 비장애인들과는 전혀 다른 감각체계를 사용한다는 데에 보다 집중한다. 작가들의 공통된 꿈은 시각적 감각의 차단은 외부의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보다 관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치심 없이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할 수 있고 기꺼이 타인을 위한 불편을 감수하는 열린사회다. '따숨책'은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명명한 그들이 만든 책이다. 이로써 두 차례의 특강과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모임을 통해 시지각에 크게 의존하는 성향을 벗어나는 기초적 중요 훈련을 비롯하여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주제 아래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를 책으로 묶는 작업을 함께 하게 되었다.

따라서 '따숨책'이라는 말의 의미를 공유하고 주제와 방식을 이해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우선 감각이라는 말의 이해가 서로 판이했고 이를 단순히 '시각장애인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 남민이 작가는 자신의 소통방식이 그동안 대상을 정해놓고 일방적 태도로 이야기 한 '참으로 불친절'한 것이었다고 평하는가 하면 작가들 하나같이 '따숨책'을 함께 만들면서 나눈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감각이나 감정, 사고에 있어 무의식적 편견을 더 명료하게 보게 된 것은 자신을 돌아본 소득이었다고 말한다.

'공간따숨'은 따스함이 흐르는 휴머니티 공동체

'공간 따숨'엔 24시간 불이 밝혀진다. 일상으로부터 버려지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고찰이라는 점에서, 재생하고, 상기시키고, 삶을 다시 바라보게끔 하는 장치를 추구하는 고보연 작가는 소수자문화예술활동의 지속, 확장을 위

한 소자모 '바람' '사각지대블루스'등의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도 알려진 작가로서 올해 초 제3회 군산미술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십 수 년째 세노야봉사단 단장으로서 어렵고 소외된 곳을 찾아 헌신적 사회봉사를 지속하고 있는 채영숙 작가는 시낭송과 더불어 자연과 시간을 담아내고 표현하며 아름다운 삶의 나눔을 추구하는 유화 작가로서 정물, 풍경, 인물 등 다양한 대상을 즐겨 그린다. 그런가하면 고나영 작가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가장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는 평온한 에너지 안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기억, 또는 이 순간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영원히 저장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또한 현재 군산에서 촬영 중인 영화 '아메리칸타운'에서 엑스트라 역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가령 작가는 테셀레이션(쪽매마춤)기법을 이용, 바를 정(正)자를 착시로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삶(여러가지 색상)을 겹과 속으로 드러내어 우리네 삶에 있어서의 이분법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중세 성화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현대인의 삶이나 한국사회에서의 종교, 특히 기독교가 갖는 의미를 평가해보고자 한다는 문귀화 작가를 비롯하여, 작품 속에서 "나는 배회한다. 그리고 끊임 없이 대화를 시도해본다. 불투명한 것들이 응고되어 쌓인다. 내부와 외부의 세계 그리고 감정들, 현상들을 '나'라는 결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남민이 작가까지 그녀들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공동체적 휴머니티를 모티프로 하고 있다. 지나는 시민들, 그리고 군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공간 따숨'앞에서 가던 발길을 멈추고 작품의 메시지를 읽어내고 따스함을 공감해 줄 때 큰 격려와 보람을 느낀다는 그녀들에게서 군산이 지닌 문화예술의 저력과 정체성이 더욱 빛나 보인다.

'공간따숨'
군산시 구영6길 26
고보연 작가
HP.010-5678-9597

홍성미

공간따숨의 2016 다같이 가치로운 브라보 클라보 두번째 이야기
가까이 더 가까이 빛
2016.08.12 - 2016.09.01

회출기

공간따숨의 2016 다같이 가치로운 브라보 클라보 두번째 이야기
가까이 더 가까이 빛
2016.08.12 - 2016.09.01

홍성미

홍성미작가(조각, 1971년생)는 전주에서 출생하여 전북대학교 미술학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졸업 후 남원을 떠나 경남 전주에서 삶의 터전이 되었다. 지역 아티스트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학생지도로 바쁜 와중에도 2011년부터 꾸준히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14-2015년에는 군산 미술중앙회에서 대표도원(대표도원 미술동아리)을 이끌기 위해 꾸준히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다. 책방세상, 자작과 확산, 전, 전북대 석양회, 전, 대한한글 난부 현대 미술제 전, art in house, 전, 작지경 이야기 전, 행복한 일상 전, 작자리대원부스 전 등에 참여하였다.

홍성미는 소수에 대한 관심과 인간의 이기성에 의해 벌어지는 소중한 이야기를 작품 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작가이다.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왜곡되어 만들어진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그녀의 작품에 드러난다. 그 작품에서 그녀의 따뜻함과 인간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제의 인공성에서 소수의 미덕과 무책임함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인다. 그녀의 그림은 작지만 소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일상의 원한, 본연의 모습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고, 그리고 욕심 없이 감사하며 소소한 모습들을 그려주고...



채영숙
자연과 시간을 담아내고 표현하며 아름다운 삶을 나누고자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을 추구한다. 정물, 풍경, 인물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며, 연못, 장미, 소국 등이 자주 등장한다.

이가령

테셀레이션(쪽매마춤)기법을 이용하여 바를 정자를 착시로 표현한 것으로 다양한 삶(여러가지 색상)을 겹과 속으로 나타내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이분법적 양가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고보연

버려지는 것, 잊혀지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고찰입니다. 재생하고, 상기시키고, 삶을 다시 바라보게끔 하는 장치를 추구한다.



문귀화



중세 성화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현대인의 삶이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가 갖는 의미를 평가해 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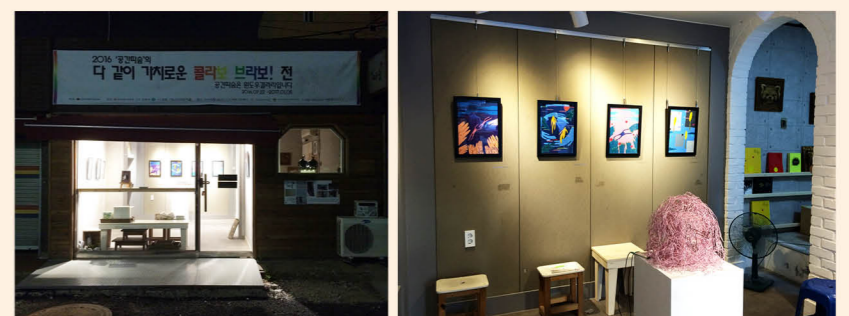
고나영



이 순간을 기억해... 이집트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었다. 영원이라는 것을 믿었으며 그를 유지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설계를 시작했다. 그로 인해 탄생한 것이 피라미드이다. 이집트인들은 영생을 믿었고 죽음이후의 삶과 함께할 부장품들과 함께 피라미드 안에 묻혔다. 신기하게도 피라미드안의 부장품들은 시간이 정지되었다. 아주 과학적이고도 치밀한 계산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는 시간을 멈추는 에너지를 가졌다. 가장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는 평온한 에너지 안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기억 또는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영원히 저장하고 싶다.

남민이

나는 배회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해본다. 불투명한 것들이 응고되어 쌓인다. 내부와 외부의 세계 그리고 감정들, 현상들을 '나' 라는 결정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권산은
익숙의
땅입니다

정육 프랜차이즈 '한울축산'
정경표 회장

글 | 이생곤(시민기자)
grandlee@kmni.co.kr

"기자님, 제 앞에 있는 이 칼이요. 아주 정확하게 잘 썰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에 무척 혼란스러운데 정직한 이 칼처럼 시원하게 정리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웃음)"

자신의 직업을 현 시국과 비유한 사이다 발언이다. 지금은 정육 프랜차이즈를 관리하는 회장이면서 동시에 한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로서 입지를 다져가는 정경표씨. 고단했던 젊은날은 이제 추억으로 남길만한 여유가 생겼음에도 그는 아직도 떨었다고 손사래를 친다.

고향 서울을 떠난 지 10여 년, 서울을 떠나오기 전부터 그의 별명은 '마이너스의 손'이었다. 손대는 것마다 손해를 보니 그런 별칭이 붙은 것은 당연지사, 꼭 성공을 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갖고 탈 서울 한 뒤에도 '마이너스의 손'이란 별칭은 떨어지지 않았다.

계속적인 절망 속에서 우연한 기회에 접한 정육업이 지금의 그에게 성공이라는 선물을 안겨줬다. 순탄치 않았던 그의 과거를 거쳐 한층 여유로워진 현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학 생활 1년만에 휴학

97학번인 그는 대학생살은 오직 음주 가무였다. 학문을 익히려고 들어온 대학은 그에게는 별 감흥이 없었다. 시험은 낙제 점수를 간신히 면할 정도.

"야, 정경표, 너 이 따위로 학교 다니려면 때려쳐라. 너 이러는 거 보려고 대학 보낸 줄 알아?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엄마아빠 고생하는 거 안 보이나."

일상이 돼버린 엄마의 잔소리, 그 잔소리가 그에게 소귀에 경 읽기기가 돼 버렸다. 어찌어찌해서 대학생살 1년을 겨우 넘겼다. 엄마의 잔소리도 오랜세월에 약이 되었는지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으려고 휴학을 하고 경남 거제에 있는 조선업체의 취부사(용접공 조수)에 취업했다. 이제는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아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독립을 했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서울에서 응석받이로만 살다가 조선소에 취업을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잔소리를 듣지 않게되어서 매우 좋더라고요.(웃음) 정말로 숨도 안쉬고 일을 했습니다. 돈 버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유흥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빨리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 외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조선소 취업 1년 즈음하여 입대를 하게 됐다. 1년간의 월급쟁이 생활은 사회생활의 잠깐동안의 맛만 보게된 계기가 되었다.

'마이너스의 손', 서막이 열리다

군 전역 후 복학은 업두가 나질 않았다. 학업에 매진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두 번째는 돈 벌 욕심이었다. 전역 후인 2002년은 월드컵 특수와 함께 대한민국 4강 쾌거를 이룬 해이기도 했다. 경기도 매우 좋았던 터라 그에게겐 뭘 해도 잘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군대 가기 전 모아뒀던 돈과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동대문상가에서 패션의류 유통업을 시작했다. 경험은 없었지만 의류 유통업계의 바닥부터 한다는 생각으로 누구보다 더 열심히 또 뛰고 또 뛰었다.

"당시 뭘해도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복학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업에 더욱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의류산업과 유통산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뛰어들었기 때문에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웠다. 의류공장에 주문해 의류 도매업자들에게 넘기는 구조였는데, 트렌드를 제때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출고되는 족족 불용재고로 남게 돼 빛만 쌓여가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1년 정도 버티고 버티다 빛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면서 미련없이 털고 나왔다.

설상가상

그는 당시 한창 유망하던 자격증이던 타워크레인 자격증을 땀다. 부모님으로부터 얼마간의 용돈을 받고 노력 끝에 손에진 자격증은 그에게 무한한 경제력의 원천이 될 것만 같았다.

건설 경기에 불이 붙은 시기여서 타워크레인 자격자가 귀한 대접을 받았다.





자격증을 받고 난 후 여기저기 불러주는 업자들 때문에 전화가 불이 났다. 덩달아 지갑 또한 두툼해져 갔다. 월급을 탄 날엔 지인들 불러다 술집에서 한 달 월급을 죄다 탕진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부모님께 죄송해요. 왜그리도 철이 없었던지, 내복은 고사하고 천 원짜리 한 장도 못드렸으니.."

한숨을 쉬며 그는 말을 잇는다.

"대략 5개월까지는 돈 버는 재미로 크레인 작업을 했어요. 돈을 벌면 지인들과 신나게 놀 생각을 하니 일에 흥이 날 수 밖에요. 그런데 딱 5개월까지였습니다. 경기가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업자한테서는 전화가 안오고 언제 술 먹냐는 친구들 전화만 오더라구요 (웃음)"

이후 몇 달간 일거리가 없어 부모님께 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2년 동안 맡아먹은 것을 이번엔 기필코 다 만회하리라 다짐을 하고 시작했던 PC방 사업.

"당시 저희 PC방 이용객 중 70% 이상이 청소년들이었어요. 24시간 주야간 쉬지 않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유자재로 이용했어요. 좀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애들 코 문은 돈으로 매장 운용을 했지요.(웃음)"

호황도 잠시 청소년 규제법으로 오전 9시~오후 10시 이외에는 청소년들 출입을 금했기 때문에 주 고객이 이탈하는 상황에 처했다. 여기에 PC방 내 부 금연제도, 경쟁업체 증가, SNS 게임 등이 인기를 끌면서 서서히 PC방 사업에도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몇억 원 까먹는 거 순식간이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마련한 돈인데... 밤낮을 안가리고 부지런히 일해서 일어서려고 노력했는데, 생각치도 못한 변수 때문에 또 사업을 맡아 먹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지인이 운영하는 커서비스 센터에 취직해 6개월 배송일을 했지만, 배우기도 전에 사무실 부도로 배송일을 그만두게 됐다.

약속의 땅으로

뭘 해도 안 됐던 20대 시절의 정경표씨. 당시 죽고 싶었던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심정으로 셋째 이모가 살던 전주로 내려왔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 내려온게 아니었기 때문에 맹목적인 휴식이었던 셈이다.

"지금에서야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되는 것이 없으니 삶의 목표를 상실할 수밖에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다. 그렇게도 굳게 닫혀있던 운은 정육점 업계에 발을 들이면서 서광이 비쳐왔다.

"셋째 이모가 전주 시내에서 정육업을 하세요. 전북 정읍에서 제법 큰 농장도 하시고 계시구요. 하릴없이 텅구는 제가 안쓰럽게 보였던지, 이모님께서 자신이 운영하시는 정육매장에서 한 번

일해보는 것이 어떨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뒤 가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승낙했습니다."

이모와 조카 사이라도 엄연한 위계질서가 있는 법, 독수리가 새끼에게 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둥지에서 밀어내는 것처럼, 이모는 일할 때 만큼은 정경표씨에 냉정했다고 한다. 그동안 고깃집에서 불판에 구워서 먹기만 했지 손으로 만지는 것은 처음, 말캄말캄한 고깃살을 만지는 느낌이 나쁘지는 않았단다. 3개월 동안은 칼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청소만 시키는 것이 내심 좋지않은 안았을 터. 고깃살을 만지면서 느꼈던 '뭔가 되겠다'라는 기운으로 다른 정육점으로 이직했다.

"이모가 정육점내에서는 되게 냉정했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따뜻한 이모지만요(웃음). 정육점 3개월즈음 되니깐 뭔가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모네 정육점에 있으면 일을 하는데 스스로 부담을 느껴서 이직하게 됐습니다. 이모가 많이 말렸는데도 자신감이 생겨서 과감하게 결정했어요."

이직한 곳이 전주 시내에 있는 고기백화점이란 곳이었다. 수개월 동안 청소와 고기 써는 것을 병행을 했다. 초보지만 고기 육질을 느낄수가 있었다. 어찌면 그 느낌이 지금의 그를 있게한 동력을 것이다.

정육점 사장이 되다

"초보가 뭘 안다고 겁도 없이 매장을 열었을까요. 당시 상황을 보면 식겁한 결정일 수도 있지만 육고기가 제게 준 행복과 물질을 본다면 천생연분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번이 마지막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좀 빌렸습니다. 부모님께서 도저히 말씀을 못드리겠다더라고요. 다행히도 매장을 오픈한 직후부터 매우 장사가 잘됐습니다. 목이 좋기도 했지만 마진이 좀 적더라도 좋은 품질의 육고기를 쓰니 손님들이 늘어날 수밖에요."

정경표씨는 품질에 대해 힘을 주어 말한다. 좋은 육고기를 선별하기 위하여 1주일에 2번씩 우시장으로 출근하다시피 한다. 직원들을 놔두고 직접 운전해 소를 보고 고른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골라야 직성이 풀린단다.

돼지고기는 군산 인근에 있는 도축장에서 가져온다. 물론 손님들에게 팔 물건을 선택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 "인터뷰 전에 소 뼈에서 살을 발라내던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살과 뼈가 분리된 것을 가져와서 손님들에게 판매를 하면 수고가 덜 할텐데요." 질문에 그가 힘주어 말한다.

"정육점 마다 판매 방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발라진 살과 뼈를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구요. 저처럼 소를 직접 사서 도축장에서 작업을 해서 저희 매장 작업장에서 발골(살과 뼈를 분리하는 작업)하는 방식, 2가지로 나뉩니다. 발골 작업이 좀 번거롭긴 해도 건강한 소를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자부심이 생기죠."

나눔을 실천하다

6년전 전주 생활을 마감하고 이곳 수송동에 자리를 잡았다. 제법 장사 수완이 좋아져 체인점을 3개까지 늘려가고 있는 정경표 회장, 앞으로 체인점을 늘려 사세를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단순한 사세 확장을 넘어 뭔가 목표 의식이 명확해 보였다.

"육고기가 저를 살렸듯이 주위의 힘든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필리핀에 있는 몇 명에게 정기적으로 물질 후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후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필리핀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가 답한다.

"6.25 전쟁이 났을 때, 필리핀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도왔네요. 일종에 보답 차원도 있구요. 또 다른 이유는 정육점을 하면서 육가공 쪽으로 관심이 매우 많았어요. 지인이 필리핀을 가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출장을 많이 가는데 육고기 가공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으니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웃음)."

편안한 인생만을 살아온 기자에게 온갖 역경을 딛고 나름 성공한 그로부터 사람 냄새나는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썰렁하다 못해 을씨년스럽게 다가왔던 군산 신명시장 입구

설 대목은 옛날 "나라가 뒤숭숭해서 사람들이 안 나와"

물가 인상보다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더 걱정이라는 재래시장 상인들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설날이 사나흘 남았는데 떡 주문은 얼마나 들어왔나요?"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주문은 무슨... 떡 장사 25년 했지만 이렇게 바닥인 설 경기는 처음 봐요. 작년만 해도 설을 앞두고 시루떡 주문을 그런대로 받았는데, 올해는 간이 천리요. 작년의 절반도 안 되니까.(한숨) 떡 많이 먹으면 젊어진다 는데 물어보는 사람도 없네요..."

지난 1월 24일 오후 군산 역전시장 떡 가게 주인(주정순·추양순 할머니 자매)과 나는 대화이다. 두꺼운 방한복 차림으로 손님을 기다리던 추양순(70) 할머니는 기자의 질문에 토라진 표정으로 한동안 바라보더니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추 할머니는 "작년만 해도 설을 앞두고 매상을 200~300(주문 포함) 정도는 올렸는데 올해는 100만 원 어치도 팔지 못했다"며 울상을 지었다.

두 할머니와 나는 대화는 10분 정도. 그들은 장기적인 불경기 원인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소비심리 위축을 첫째로 꼽았다. 그들은 김영란법도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독선, 거둬진 공약 파기 등을 예들려 비판했다.

"뛰는 물가보다 공포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더 걱정돼"

위 사진은 24일 오후 5시 10분 전북 군산의 신명시장 입구 모습이다. 이 시간이면 장 보러 나온 주부들과 노점상들로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던 시장 입구가 텅 빈 운동장처럼 썰렁하다. 골목 가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가게를 철시해서 더욱 황량하고 을씨년스럽게 느껴진다. 간혹 보이던 구루마꾼도 보이지 않는다. "설이 코앞인데 이렇게 썰렁해서야!" 소리가 절로 나왔다.

기자는 2013년 2월에도 군산의 전통시장(신명시장, 공설시장, 역전시장 등)을 취재한 적이 있다.(관련 기사: <'생선장사 40년에 이런 설은 처음 봐요!') 당시에도 올처럼 생활물가 상승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설 경기가 영하 10도의 날씨만큼이나 공포 얼어붙어 있었다. 상인들의 한숨과 탄식은 그때와 비슷했으나 매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심각함이 더했다.

생선 장수 30년째라는 최강복(65) 김정자(61) 부부는 한목소리로 "올 매상이 작년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하소연. 노련한 솜씨로 명태포를 뜨던 김씨는 "점심 먹고 내내 공치다가 손님 주문으로 작업하고 있다"며 "건너편 채반에 말리고 있는 박대랑 조기가 오늘 아침에 넣어놓은 것인데 지금까지 박대만 다섯 마리 팔고 그대로"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옆에서 명태를 씻던 남편 최씨가 거들었다.

"날도 춥지만,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서 뒤숭숭하니까 사람들도 나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도 줄고 돈도 더욱 절약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 달린 사람은 다 대통령을 욕해요. 최순실은 평생 징역 살아야 한다는 손님이 있어요. 박근혜는 아버지 덕에 대통령 됐으니 잘해야 했는데 오히려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노령연금을 20만 원씩 준다고 해서 다 찍어주고, 젊은 사람들은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내려준다고 해서 박근혜를 찍었는디 이뤄진 게 하나도 없으니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거둬진 거짓 해명으로 국회에서 탄핵까지 받았으니 할 말이 없게 됐죠"

최씨는 뛰는 물가보다 공포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 걱정했다. 물가가 상승해도 희망이 보이면 소비 심리를 자극해서 경기가 풀리고, 물가가 하락해도 전망이 어두우면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게 그의 논리였다. 지난 조금 때 생선을 잔뜩 구매해왔다는 최씨는 "올 설에는 내 돈(본전) 빼먹기도 힘들게 생겼다"며 우려를 표사했다.

얼마나 팔았느냐는 질문에 버럭 화를 내기도

선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생선가게에서는 국내산 흥어(小) 한 마리에 3만 원, 도미(小) 3마리 2만 원, 꽃게(大) 1kg에 2만 5000원, 주꾸미 1kg에 1만 7000원, 왕새우(수입) 1kg에 2만 원, 갈치(大) 한 마리 2만 원, 아귀(小) 한 마리 1만 5000원, 준치(일본산) 한 마리 8000원, 오징어 3마리 1만 원, 상어(大) 한

마리 3만 원, 제수용 조기(상품) 10마리 5만 원, 박대(中) 10마리 3만 원, 병어(大) 한 마리 1만 5000원, 명태포(한 마리) 5000원씩 했으나 거래는 뜸했다.

한가하기는 공설시장 역시 마찬가지. 그래도 거래가 드문드문 이뤄졌다. 과일가게에 들른 손님이 꽃감을 구매하고 값을 치르는 모습이 반가울 정도. "설이 며칠 남았으니 두고 봐야 알겠지만 올 대목장은 싸가지가 모가지"라며 탄식하는 아저씨도 있었고. 얼마나 팔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 알면서 뭐하러 묻느냐!"라며 버럭 화를 내는 아주머니도 있었다.

선물용 멸치는 크기에 따라 달랐다. 한 상자(1.5kg) 기준으로 잔멸치(조림용)는 2만 5000원, 중간크기(안주용)는 1만 5000원~2만 원, 큰 멸치(국물용)는 1만 원~1만 2000원을 호가했다. 김은 최상품(돌김) 한 톨에 1만 8000원 일반 재래김은 7000~8000원이었다. 건어물상회 주인은 "멸치는 작년보다 50% 김은 100% 정도 올랐다"며 "과일이 비싸면 선물용 멸치를 많이 찾고 과일이 흔하면 멸치 인기가 떨어진다"고 귀띔했다.

해장국집 주인 "깍두기 담그기가 더 무섭다"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몰고 온 달걀 파동에도 불구하고 제수용 부침개(명태, 표고버섯, 동그랑땡, 맛살, 대과 등) 가격은 1kg에 2만 원으로 4년 전과 비슷했다.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500g(1만 원) 구매도 가능했다.

제수용 생선점은 품목에 따라 상승 폭이 달랐다. 종류별로 보면 조기는 7마리 1만 원에서 1만 5000원~2만 원, 장대는 1마리 5000원에서 1만 원, 박대는 1마리 5000원에서 3마리 기준 2만 원, 병어는 1마리 1만 원에서 1만 5000원~2만 원으로 4년 전보다 30%~100%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제수용 반찬 가게를 9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임성진(39) 씨는 "편리해서 좋다는 손님은 조금씩 늘고 추세이지만, 매상은 갈수록 떨어진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매상이 떨어지는 원인을 부침개 주재료인 달걀값 상승과 정부의 무성, 대통령 탄핵사태 등을 지적했다. 이어 임씨는 "달걀값 올랐다고 양이나 크기를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난감해했다.



최강북, 김정자 부부가 생선을 손질하고 있다



꽃감을 구매한 손님이 값을 치르고 있다



생선가게 주인이 근심어린 표정으로 신어들을 바라보고 있다



구경군도 보이지 않았던 역전시장 신발가게



부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제수용 부침개들

군산시 월명동에서 콩나물 해장국집을 운영한다는 김종권(60대) 씨는 "달걀값도 배로 올랐지만, 한 개 1000원 하던 무가 2500~3000원으로 뛰어 깍두기 담그기가 더 무섭다"고 말했다. 그는 "재룻값은 올랐지만, 해장국은 예전대로 5000원씩 받는데 타산이 안 맞아 값을 올리든지 문을 내리든지 해야 할 모양"이라며 "요즘엔 깍두기 찾는 손님이 더 많아졌다"라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AI 사태로 한 판(30개)에 1만 2000원까지 치솟았던 달걀과 무를 제외하고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시금치 등 각종 나물과 꽃감, 밤, 대추 등은 4년 전 가격과 비슷했다. 제수용 사과와 배는 30%~50% 정도 올랐는데 씨알도 작았고 선도도 예전만 못했다.

상인들이 불경기 원인으로 꼽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신발가게, 옷가게 정육점 역시 손님의 발길이 뜸했다. 정육점 주인 아주머니(50대) 설명에 따르면 돼지고기(동그랑땡 재료)는 한 근에 6000원, 국거리 쇠고기는 한 근에 2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어 아주머니는 "작년 설 대목만 해도 그런대로 주문이 들어왔던 쇠고기 선물 세트가 올해는 거짓말처럼 딱 끊겼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가해서 놀러 왔다는 이웃 소금가게 주인 소성필(60대) 씨는 "정치가 이 모양이 풀리고 눈까지 와 붙었으니 누가 장 볼 마음이 나갔소. 이젠 대통령이 몰고 온 재난이지 대목이 아뇨. 왜냐면 국민이 믿고 대통령 뽑아놓고 뒤통수 맞은 거 아니요. 금계 대목이 아니라 말입니다"라며 가슴에 쌓인 불만을 털어놓았다.

상인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탄핵 정국), 김영란법, 조류인플루엔자(AI),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등을 불경기 원인으로 꼽았다. 취재 중 만난 상인과 손님 20여 명. 놀랍게도 그중 불경기 원인으로 탄핵 정국을 꼽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김영란법, AI, 군산조선소 폐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군산조선소는 약 5천 명의 노동자 사활이 걸린 일터이고, 군산 경제의 약 30%를 차지해서 전북 도지사와 군산시장이 본사를 방문하고 시도의원들이 일인시위에 나서는 등 기관과 시민단체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에도 후위로 밀려나다니 예상외였다. 지방 소도시 전통시

장 민심조차 '군산조선소 폐쇄'와 같은 지역 현안보다 박근혜-최순실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홍글씨’의 주연 배우 ‘은주’를 그리며

은주가 떠난 지 열두해째

다시 2월
군산의 보배, 영화 '주홍글씨'의 주연 배우 '은주'를 그린다.

어느덧 12년 전 2월 22일,
스물다섯 살의 청춘 은주는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났다.
은주는 그녀의 마지막 일기에 '한결같아라'라고 썼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승에서처럼 한결같이 살고 싶었을까?
은하수 미리내 강변에서 지상에서 못 다 이룬 꿈을 한결같이 키우고 이루고 싶었을까?
그래서 이승에 남겨두고 온 사람들로 부터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싶었을까?

그녀가 남긴 영화
'오, 수정. 주홍글씨. 번지점프를 하다. 카이스트. 하늘정원.
태극기 휘날리며. 안녕 유에프오. 연애소설. 송어. 하얀방. 불새 등
그리 많지 않은 작품들이지만 모두 주옥같은 작품으로 우리 마음에
잊지 못할 감동을 주었다.
2001. 제38회 대중상영화제 신인여우상이 그녀의 연기력을
인정하였고 많은 영화마니아들이 그녀에게 기대를 나타냈다.
그런 은주가 12년 전 2월 스물다섯 청춘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한결같아라'라는 마지막 일기 한 장을 남긴 채 홀연히 하늘나라로
떠난 것이다.

*이은주 영화배우. 전북군산 출생 (1980.11.16). 2005년 2월 22일 자살. 단
국대학교 연극영화과. TV-불새, 카이스트, 백야 3.98, 어느 날 갑자기,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영화-주홍글씨, 태극기 휘날리며, 안녕! 유에프오, 연애소설, 하늘정원, 하얀방, 아미지몽, 번지점프를 하다, 오! 수정, 해변으로 가다,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송어. 2001년 대중상 신인여배우상(오! 수정) 2004년 MBC 연기대상 최우수상, 베스트 커플상(불새)

은주를 노래함

한결 같아라
은주는 구슬
나는 너희를 구슬이라 불렀다
너희들을 구슬로 꿰어
보물로 삼으려 했는데
은구슬은 저만치 굴러서 홀로
깜깜한 밤 뺨짝이는 별이 되어
미리내 여울 속으로 흐르는구나

한결 같아라
어느 날 밤하늘에 산산이 흩뿌려진
은빛 별 한 무리 가운데
피아노 건반 위에서 하얗게 웃는
별 하나를 찾아
그 옛날처럼 다시 구슬로 꿰다.

- 여울 시집: '여울에 띄운 주홍글씨' 5-4



다시 2월,
은주를 그린다.
은주는 피아노를 곧잘 쳐서 나는 그녀가 멋진 피아니스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음악시간에는 늘 피아노 반주를 도맡아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다.
은주는 그 이상이였다.
피아노를 잘 치는 음악적 소양이 뛰어나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영화배우로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스물다섯이 되는 2월, 봄이 문턱에 이르렀을 때 홀연히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났다.

은주의 청춘은 봄 안개처럼 따스한 온기를 품고 아직도 고향 군산에 서려있다.
그때는 군산의 중심 변화가였던 중앙로 일대에도, 월명공원 동백 숲에도, 금강변 갈매기 무리 속에도, 서해의 노을 진 바다와 하늘가에도 은주는 천사 같은 나래를 날부끼며 날갯짓을 하고 있다.

그녀가 늘 사랑했던 고향 군산,
이제 군산이 은주를 품었으면 좋겠다.
그녀는 군산이 부르면 우리가 손짓하며 부르면 한 마리 새가 되어 천사처럼 날아올 것이다.
군산의 곳곳에서 은주를 옛 처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녀가 보고 싶다. 은주가 보고 싶다.

2017년 2월
은주의 옛 담임선생 (군산교대부설초 4학년 담임) 여울 김준기



군산조선소- 정부와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글 | 이희찬(상임고문)
lhc-good@hanmail.net

새해 벽두부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군산시민을 비롯한 전북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부터 설마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오는 6월 이후로는 “조선업 일감 수주의 어려움과 회사 위기극복을 위해 군산조선소의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대중공업의 최종 결론이다. 지난해 4월 만해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고용인원이 직영 및 사내·외 86개 협력업체를 포함해 5250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66개 업체 3899명으로 무려 1351명이 감축됐다.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면 현재 남아있는 66개 협력업체가 줄도산으로 4000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실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 될 수 있다.

1조 4600억원 투자한 현대식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되어야 하는가?

현대중공업은 2010년 군산산업단지 내 181만㎡의 부지에 군산조선소를 준공했다. 군산조선소는 25만t급 선박 4척을 동시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130만 톤급 도크 1개와 골리앗 크레인 1650톤급을 갖추고 있다.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준공 7년 만에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자산낭비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의 투자비용만 해도 총 3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외에도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 진입도로 건설, 인근대학 조선학과 신설 등 현대중공업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백억원이 투자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 및 군산시지자체에서 지급한 투자보조금도 200억원에 달해 군산조선소가 가동이 중단되면 현대중공업의 투자액인 1조 4600억원까지 합한 막대한 투자비용이 매몰되어 버린다. 전북도 및 군산시지자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을 막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 중이다. 군산시장 및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등이 지난달 24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항의방문하고 군산조선소 폐쇄를 반대하는 도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또한 서울 평창동 정몽준 이사장 자택 앞 대로변에서 군산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전라북도 기관장, 사회단체, 협력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군산조선소 존치 릴레이 시위 출정식도 개최했다. 이외에도 범도민 총궐기대회를 계획하는 등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전북도민들은 지자체 역할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와 각 정당의 중앙당 차원에서 현대중공업을 설득하고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길 강력히 바라고 있다.

전북도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전북도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거제·창원 지역의 부실기업인 STX조선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지역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자금 등을 지원했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해서는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가동중단이라는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조선소가 충남이나 경남 또는 전남지역의 조선소였다면 조선소 전체가 가동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군산조선소를 폐쇄시키는 것은 전 협력업체의 도산으로 군산조선 산업의 싹을 자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북도민들은 선거 때마다 정당대표자나 대선주자들이 전북지역을 방문해서 말로만 적극 지원하겠다는 립 서비스에는 이제 실물난다는 반응이다. 대선주자나 정당대표자들이 전북을 방문할 때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와야 한다. 전북도민들은 과연 각 정당에서 전북지역 경제 위기상황에 대해 전력을 다해 뛰었는지를 예의 주시하여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 대선주자들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부터 막아야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주자들은 한결같이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81만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등 총 131만개의 일자리를, 이재명 성남시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전북도민들은 대선주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앞서 우선 당장 가동중단이 예정된 군산조선소부터 살려내서 전 협력업체 도산 및 실직대란을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 초기 문신인 이 직은 세종 5년(1423)년 5월에 “백성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곧 국력의 기틀이 되니, 나라 일을 맡은 관리는 누구든지 법대로 백성들의 살림을 후하게 보아주어야 한다.”라고 진언하여 이러한 기본 원칙을 육전에 범으로까지 정하였다. 지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에서 일부러 돈을 지급해서라도 소비를 촉진하게 하기도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게는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선주자들 역시 한결같이 1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내놓고 있는 현실에서 조선소를 폐쇄하여 협력업체 및 대량 근로자를 해직으로 내몰아 지역경제를 파탄시키는 정책은 행정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다. 이윤추구가 절대 목표인 기업에게 매달리기 보다는 기업지원과 관련 있는 중앙부처, 각 정당, 국민연금관리공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과 협력하여 군산조선소 존치방안을 모색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정부의 관공선 및 함정을 관련기업이 발주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등 도내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기대해 본다. 국제유가가 회복세를 보여 수주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군산조선소 가동중단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 군산시, 2016년도 시세 결산액 1,752억 원 '사상 최고'

최근 10년간 973억(2.3배) 증가, 시세 2천억 원 시대 눈 앞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확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2016년도 시 세입 결산결과 1,752억 원을 달성함으로써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는 민선 4기 첫 해인 2006년 779억 원에 비해 973억 원(124.9%)이 증가해 10년 만에 자주재원인 시세가 2.3배 확대된 것이며, 2015년 1,582억 원에 비해 170억 원(10.7%)이 증가된 것이다. 이 같은 증가추세로 볼 때 2019년에는 시 세입 예산액 2천억 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세입예산 2천억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자주재원의 증가는 시민을 위해 쓰일 예산이 그만큼 증가되었다는 것으로, 경제활성화·관광광역화 어린이행복 추진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생활환경 개선, 복지증진 등에 사용하게 됨에 따라 세수부족으로 힘든 시 살림에 단비와도 같은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6년도 세수 증가요인은 5년경과 산업단지 감면분의 과세전환과 미장택지, 페이퍼코리아, 신역세권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단지, 원룸, 주상복합건물 등 신·증축 증가와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및 새만금지역 개발심리에 따른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세제환경에 능동적 대응 및 홍보 강화,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정비로 세원누락 방지, 산업단지 공장 신·증축 및 대형건축물, 유흥주점, 골프장 등 사치성 증과재산에 대한 일제조사,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원관리 강화 등 철저한 세입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 세입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대상 및 세수수락 취약분야 상시조사,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에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해 가용 자주재원 적기 조달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쓰겠다"며,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ARS(1588-5663),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를 더욱 확대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를 도입하는 등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중심의 편리한 지방세정 운영에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 군산시,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진

군산시는 기후변화와 친환경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총 14대를 민간에 보급하며, 전기차 초기 구매비용을 덜어주고 확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종에 상관없이 1대당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법인, 단체 등이며, 보급은 개인(세대) 1대, 단체 1대씩 지원한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

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차량으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8종 고속전기자동차로 한정된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월 6일부터 군산시 환경정책과(063-454-3392)에 접수하면 되고, 접수된 순서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서류는 개인의 경우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법인·기업체 등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된다. 개별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구매자는 한국환경공단 통합 콜센터(032-590-3693)를 통해 신청하면 완속충전기의 경우 3백만원, 이동식 충전기의 경우 6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군산시 일원에는 급속충전기 4개소(철새조망대, 예술의전당, 오식도동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단, 현대자동차군산서비스)가 설치 운영중에 있으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추가 확대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군산시 드림스타트, 찾아가는 'DREAM FUND BOX' 운영

'DREAM FUND 나눔 BOX'로 더불어 함께하는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지역사회의 나눔과 참여를 유도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찾아가는 DREAM FUND BOX(드림펀드박스)를 운영한다. DREAM FUND BOX는 5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단체 등에 나눔박스를 설치해 재활용 가능한 리유, 장난감,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후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시 산하 주민복지국 5개 부서에 나눔박스를 설치하고 총 46개 부서에서 순환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후원된 물품은 드림스타트 내 물품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지원하고, 기타 물품은 아이맘's 카페의 Good Shop매장에서 상설 판매하거나 바자회를 통해 수익금을 마련해 위기가정 아동과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기관·단체 외 물품후원을 통해 위기가정 지원에 동참하고 싶은 개인은 아이맘's 카페 내 Good Shop매장을 통해 연중 참여가 가능하고, DREAM FUND BOX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드림스타트(☎454-7850)로 문의하면 된다.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준치 위한 릴레이 시위 출정식 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위기상황과 준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자 군산조선소 준치 릴레이 시위 출정식이 25일 오후 3시 서울 평창동 정몽준 이사장 자택 앞 대로변에서 열렸다. 출정식에는 문동신 군산시장, 김관영 국회의원,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 도☐시의원, 전라북도 기관장, 사회단체, 협력업체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해 군산조선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역량을 결집했다. 이날 출정식은 내달 1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정몽준 이사장 자택 앞 1인 피켓시위와 플래카드 시위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린 것. 출정식은 문동신 군산시장, 김관영 국회의원,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 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의 인사말에 이어 조선업 협력업체 대표와 도☐시의원 등의 자유발언이 이어졌으며, 출정식 후에는 정 이사장 자택 앞까지 가두행진과 문동신 시장의 1인 피켓시위로 진행됐다. 출정식 참석자들은 지난 20일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언급과 관련,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경제논리에 따라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정부에서 발표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군산조선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없이 구조조정안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기재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85개의 협력업체 중 20개 업체가 폐업하고 1,351명이 실직한 상황에서 남아 있는 협력업체마저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상환해야 할 자금과 부족한 일감에 삶의 의지와 목표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2월 14일에는 범도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며,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나아간다면 분명 길은 있으며, 도☐ 가동중단을 막고 운영 정상화가 될 때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국회의원은 "군산조선소 도☐ 폐쇄는 대량실업과 협력업체 폐업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와 연관산업의 붕괴를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라며, "내년까지 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선박건조 물량의 지역적 안배를 요청하는 한편, 도내 국회의원과 당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시보건소, 겨울방학 어린이 비만예방 프로그램 성료

'내 몸애(愛) 건강 더하기 프로젝트'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
군산시보건소는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 어린이 비만예방 프로그램 '내 몸애(愛) 건강 더하기 프로젝트'가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보건소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 학생들 중 신체활동이 필요한 BMI 지수 표준 이상 및 이하 학생 40명을 선발해 총 12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어린이의 운동 및 식습관, 생활습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전에 기초체력검사, 체성분검사, 혈압측정검사 등 다양한 기본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키 쑥쑥 농구교실 및 음악 줄넘기', '몸치 탈출 위한 방승댄스' 등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흡연 등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 부모와 함께하는 조리실습도 함께 진행했다. 프로젝트 결과 학생들의 근육량이 평균 1.5% 증가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게서 악력 및 유연성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다. 전형태 군산시보건소장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고 다양하게 개발·보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최대 336만원 지원

군산시는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철거를 통하여 석면 비산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국비를 포함한 총 3억3600만원을 투자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로 오는 2월 23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와 건축물 위치도, 사진 등을 제출하면 이후 현지 실사를 거쳐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철거비용과 폐석면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하여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한다. 이형석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에도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해 슬레이트 건축물 146동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했다.

자료 제공_군산시청 공보과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
T.063)450-4208 F.063)452-8159

호남제분 주식회사 설립자 이용구 회장, 그의 발자취 (1)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itel.net

“25일 사조그룹은 동아원그룹을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줄임) 동아원그룹의 경영권을 미련 없이 포기하고 사조그룹에 지분을 넘긴 이희상 회장은 쓸쓸한 퇴장을 하게 됐다. 동아원그룹은 창업주인 운산 이용구 회장이 1956년 창업한 호남제분이 모태다. 밀가루 제조 판매를 비롯해 사료, 와인, 식품까지 다양한 업종에 진출해 한때 계열사가 30개가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아래 줄임)”— 2016년 2월 25일 EBN 뉴스에서

이희상 회장은 이용구 전 운산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그는 1993년 봄 부친이 별세하자 경영일선에 뛰어들어 본사를 서울로 옮기고 2000년 ‘동아제분’을 인수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2010년 9월 현재 밀가루 분야 매출 비중은 58.66%, 사료 분야는 41.34%를 차지하였다. 2012년에는 그룹명을 ‘동아원’으로 개명한다. 그러나 급격한 사세 확장에 따른 차입금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2016년 2월 경영권을 사조그룹에 넘겨주게 된다.

‘동아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사돈 기업으로 세간에 더욱 알려졌다. 1995년 이희상 회장 장녀(이윤혜)와 전 전 대통령 셋째아들(전재만)의 결혼으로 사돈 관계가 맺어진 것. 따라서 이 회장은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 은닉재산과 비자금을 파헤칠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다. 이렇듯 전직 대통령과 사돈지간이 되면서 여론은 금융기관들이 거래를 꺼려 불이익을 당했을 것이란 의견과 덕을 봤을 것이란 의견 등으로 나뉜다.

오늘은 이용구 회장이 1956년 전북 군산시 장미동(내항 부근)에 설립한 호남제분 역사와 이 회장이 1993년 고인이 되기까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위 사진은 호남제분 공장과 창고로 사용되던 건물이다. 군산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 건축물 170여개 중 유일한 일본식 창고이다. 1934년 제작된 군산부 지도에는 페인트, 철



호남제분 주식회사 전경(1950년대)

물, 선구(船具) 등을 취급하는 중본상점(中本商店)이라 표기되어 있다. 건물 소유주는 중본상점 주인 중본삼길랑(中本三吉郎). 주소는 군산부 혼마치(本町) 2정목. 지금의 ‘해망로 196’으로 근현대사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있다.

김성수 ‘해망로 196’ 대표 설명에 따르면 근현대사박물관은 오는 5월 개관 예정으로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농경시대를 거쳐 20세기가 끝나는 1990년대 생활상까지 엿볼 수 있도록 꾸며진다. 군산의 다양한 이야기와 진귀한 생활용품도 만날 수 있다. 건물의 특징은 창고를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것. 이 창고는 군산, 부산, 인천 등에만 형태를 보존하면서 남아있는 일본식 건물로 전해진다.

창고가 지어지는 1930년대 초 군산항에는 부잔교(뚝다리) 3기와 쌀 25만 가마를 동시에 보관할 수 있는 상옥창고 세동이 들어선다. 1934년에는 쌀 반출이 200만 석을 넘어선다. 내항 철도 주변에는 1만석 이상 생산하는 정미소 14개와 크고 작은 창고 100여 개가 들어선다. 5만석 이상 생산하는 대형정미소도 여섯 개(가등, 조일, 조선, 화강, 낙함, 육석 등)나 됐다. 이 지역은 광복 후에도 ‘정미소 거리’로 불리었다.

고무신장수 21년 만에 호남제분 설립

특이한 형태의 창고 건물은 광복 후 정부가 적산으로 몰수하여 관리하다가 1956년 창고 주변 3000여 평에 제분회사를 설립한 이용구(李龍九) 회장 소유가 된다. 이 회장은 만월(滿月)표 고무신으로 유명한 군산 경성고무 전무로 재직하다가 그해 9월 미국에서 원조 식량으로 들어온 소맥을 재료로 밀가루를 생산하는 호남제분을 설립하였다.

이 회장은 군산시 신흥동(구영 1길)에 위치한 히로쓰가옥(등록문화재 183호) 건물주이기도 했다. 호남제분을 설립한 후 히로쓰가옥을 사들여 관사로 사용했던 것.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룹 경영권이 넘어가기 전 계열사 사옥들을 매각하면서도 히로쓰가옥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이용구 회장 손녀(이나경)가 소유주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은 스무 살 때(1935) 경성고무 대리점을 개업하면서 경영자(CEO)의 길로 들어선다. 근면·성실했던 그는 논산-군산 왕복 250리(약 100km) 길을 자전거를 타고 오가며 사업에 몰두한다. 이만수 경성고무 사장에게 성실함을 인정받은 그는 1951년 경성고무 전무로 스카우트된다. 아래는 1957년 경성고무 상무로 경영에 참여, 1964년 사장에 취임했던 이용구 전 KBO 총재대행의 전언이다.

“이용구는 충남 논산 사람이야. 일제시대에 논산에다 경성고무 대리점을 열어 돈을 많이 벌었지. 6·25동란 전까지는 군소제지에 5일마다 장이 섰잖아. 군산에서 신발(고무신, 운동화 등)을 사다가 장마다 다니면서 팔았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도매상 규모가 커지니까 신발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오랫동안 거래하면서 내 아버지(이만수 사장)에게

신임도 얻었지.

그러던 중 6·25동란이 터졌단 말이야. 그때 아버님은 노령하시고, 큰형은 고려대 교수 생활하다가 어디로 가버렸고(월북), 작은형님은 경찰 간부였잖아. 나는 군대에 있었고 나이도 어렸으니 회사를 맡아서 할 사람이 없었다구. 그때 아버님이 논산에 있는 이용구를 불러 ‘네가 좀 맡아서 해보라’고 했지. 그래서 1951년 전무로 온 거야. 이용구가 호남제분을 만들고 경성고무를 그만두는 바람에 내가 군산으로 내려간 거지. 그때가 아마 1957년인가...”

이용구 회장은 1956년 공식적으로 전무직을 사임한다. 하지만 그 후에도 경성고무와의 인연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옛날 신문에 따르면 이용구 회장은 1970년대 초에도 경성고무 전무 자격으로 해외 출장을 몇 차례 다녀온다.

1972년, 당시 미국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신발류에 상쇄관세를 부과하기로 정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상쇄관세 저지를 위한 민관 교섭단체(차관급 1명, 민간기업 대표 6명)를 구성하여 미국에 파견한다. 이때 이용구 회장은 경성고무 전무 자격으로 진양화학, 삼화고무, 태화고무 등 다른 기업 대표들과 미국으로 향한다. 그는 1974년 2월과 3월에도 경성고무 전무 자격으로 업무 협의차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자료출처: 옛날신문, 기업사전, 사조 동아원그룹 홈페이지



종아니의 발길 닿는 대로



호남제분 창고건물 10년 전 모습 (이 지역은 1970년대까지 정미소 거리로 불리었다)



호남제분 창고 최근 모습, 오는 5월 근현대사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있다.

주어진 여건이 불리하다면 더 열심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

지난달에는 유전의 힘이 강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충치가 한 두 개 생길 수 있습니다. 음식이 자주 끼이는 곳이나, 치아 표면에 주름이 깊게 잡힌 부위가 있거나, 칫솔질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건너뛰는 곳 등에서 충치가 쉽게 생기겠지요. 하지만 1년 주기로 치과 정기검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1년 만에 충치가 10개 생겼고, 충치들이 깊게 진행됐다면 유전적 영향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진행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치아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치아의 가장 바깥 쪽-표면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법랑질이라고 하는데, 법랑질은 매우 단단하여 흠집이 나거나, 닳거나 하는 문제에 저항력이 매우 크고,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에 저항력이 큼니다. 하지만 단단한 대신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랑질은 부모님의 유전정보대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유전정보 설계도에 결함이 있거나, 법랑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영양결핍 또는 심각한 질병이 진행됐다면 법랑질이 충분히 튼튼하게 만들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튼튼하지 못한 법랑질은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의 공격에 쉽게 방어막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충치가 빠르게, 그리고 깊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치아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심하게 결함이 있는 것을 치아형성부전(치아가 형



성되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이라 합니다. 치아형성부전이라고 병명을 부르지는 못하지만, 법랑질이 유난히 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치아는 만들어진 다음에 잇몸을 뚫고 올라옵니다. 이가 올라오고 나서 치아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맹출된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소치약을 사용한다든지,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마신다든지 하면 치아가 충치 세균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결함이 있는 치아 자체가 정상 치아가 되지는 못 합니다. 즉, 맹출된 치아를 튼튼하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충치에 취약한 치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팔자려니 하고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나이 60에 갈비를 신나게 뜯고, 오징어든 알사탕이든 가리는 것 없이 마음껏 먹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극복하고자 노력을 해야겠지요. 보통사

람이 2분 동안 칫솔질 할 때 이런 분들은 5분 넘게 칫솔질을 해야 하며, 삼겹살 먹을 때를 포함해서 탄산음료는 마시지 않고, 과자나 사탕을 입에 대지 않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보통 사람 발뒤꿈치를 쫓아가는 정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평생 해나가야 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겠지만, 맛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는 것을 상기하며 꾸준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좋은사람 좋은치과 이형재 원장
군산시 수송동 852-2 청담빌딩3F
(063)466-2875
bolteck2@hanmail.net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항상 성심항해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의 미소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Get a Smile.
겟 어 스마일 -
좋은사람 좋은치과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서비스.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063_466_2875 fax.063_465_2922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
오전 9:20 - 오후 2:30
● 화요일 야간진료 :
오후 8:00까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매년 1, 2월이면 직장인들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연말정산은 같은 소득과 지출이 이루어졌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자녀 등 가족을 함께 부양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중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꼭 그런것은 아니고 부양가족 수, 의료비 지출 내역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절세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맞벌이 부부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각종 공제의 최적조합을 찾아야 하는데, 부부 중 공제를 어느 쪽에서 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경우의 수'를 직접 따져보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다른 배우자의 정보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근로자가 각각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해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마쳐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화면



일단 부부 모두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해야 맞벌이 부부로 인정되며 이들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가 가능한데 일반적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금액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부부 중 한명에게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남편 연봉이 300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부부 의료비가 80만원이 지출된 경우 남편이 공제하면 연봉의 3%인 90만원에 미달, 한 푼도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아내가 공제하면 60만원(연봉의 3%)을 초과하는 20만원의 의료비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역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한도가 넘어섰다면 한도이상부터는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남편은 사업자, 아내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는 신용카드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내 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더불어 사업자는 의료비·보장성보험료·교육비 공제가 안되므로 부양가족 중 의료비나 교육비등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인 아내가 의료비등이 많이 발생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월명동 19-12
(063)466-5566, 1766

세무상담 및 고문 | 가장 및 신고대리 | 법인 및 개인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업무 | 조세 불복 청구대리 | 벤처기업 확인 업무

돈이란 버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사사무소**와 함께 하셔도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무문제는
나일환세무사사무소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는 양질의 **세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조세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일환세무사 약력
군산제일고 / 전북대 행정학과 / 군산대학교 회계학과
국세청 79급 공채(15년 근무) /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익산세무서 소득세과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군산세무서 재산세과(양도소득세) / 공인중개사(14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 전문세무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세무분야 전문가
군산세무서 공평과세 위원회 위원

나일환세무사사무소

군산시 동국사길 5 (월명동 19-12)
tel. (063)466-5566, 1766 fax. (063)466-5605

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 동향

금번호에서는 군산 부동산 시장의 최근 경향에 대해서 필자의 사건을 서술하고자 합니다.

군산 경기가 최고저의 밑바닥이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경기속의 위기에서도 기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 군산의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몇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첫째 페이퍼 코리아 인근의 지가입니다. 페이퍼 코리아 부지의 개발 성공여부는 무엇보다도 롯데 아울렛의 확정 건축이 사실화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토지의 지가에 수개월전부터 반영되어 왔으나 "진짜" 라는 설이 기정화됨으로서 의구심에 선뜻 투자의 엔터키를 누르지 못하고 관망하던 매수 세력이 적극적으로 인근 부지의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로 조촌동 롯데리아 인근 대로변의 지가는 벌써 650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부지가 매물로 나오면 바로 매수자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조촌동 800-00번지 일대 1258제곱미터는 평당 500만원으로 매물로 나와 있어 매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이곳 페이퍼 코리아 인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북대 병원이 신축될 부지는 개발행위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지

가 보상 협상을 앞두고 있고 인근 주변의 지가도 반사 이익을 얻고 있어 이 주변 지가도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으며 최근 옥산 삼거리에서 옥산 IC 방면으로 가는 길가의 농지가 평당 90만원에 거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병원 부지의 토지가 보상 책정되어 보상금이 나오면 대토용으로 주변 농지의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 속에 옥산, 쌍봉리 인근의 농지가 평당 1만원 정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동에 쌍용에 아파트 부지 보상도 예정되어 있어 인근 일대의 대토용 토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매수세가 예상됩니다.

셋째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인근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는 작은 면적단위의 토지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통됨으로서 편선 부지나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소규모 면적의 부지가 희소성을 갖게 되어 평당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어 거래의 활기를 띄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지역 사람들은 고군산군도가 통영이나 남해보다 훨씬 경관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넷째 최근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까지도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한 실정인지라 현금 보유가 여유로운 자산가들은 이런 불황일때 급매물이나 저평가된 상가빌딩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으며 최근 수송동, 미장동 등을 중심으로 상가빌딩의 매수 문의가

있고 특이한 상황으로는 상가빌딩을 전체 매수하는 데는 적지 않은 자금이 소요됨으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가빌딩을 구분 등기화 하여 증별, 호별로 쪼개서 매각하는 방안이 투자의 한 방법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서 매각하는 빌딩상가의 경우 우선 공실이 아닌 현 임차인이 존치해 있고 건물 토지 감정이 대비 60%~70%의 대출을 받아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면 대출에 따른 이자를 충당하고도 임대소득이 월등한지라 이자소득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독자들께서는 부지런히 발품, 손품, 사람품(각종 인적 네트워크 및 공인중개사, 부동산 재테크 주치의 등의 전문가)을 팔아 한겨울에 피는 꽃이 자태와 향기가 진하듯 이 어려운 경기속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진가를 만끽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사채나 은행 차입금 등의 부채를 이용함으로써 자기자본의 이익률이 상승하는 효과



석사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자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 최인성 대표 군산시 조촌동896 (시청로10) (063)452-0025 / 010-7758-4989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태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슬퍼할 일을 마땅히 슬퍼하고 괴로워 할 일을 마땅히 괴로워 할 사람

남의 앞에 섰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남의 뒤에 섰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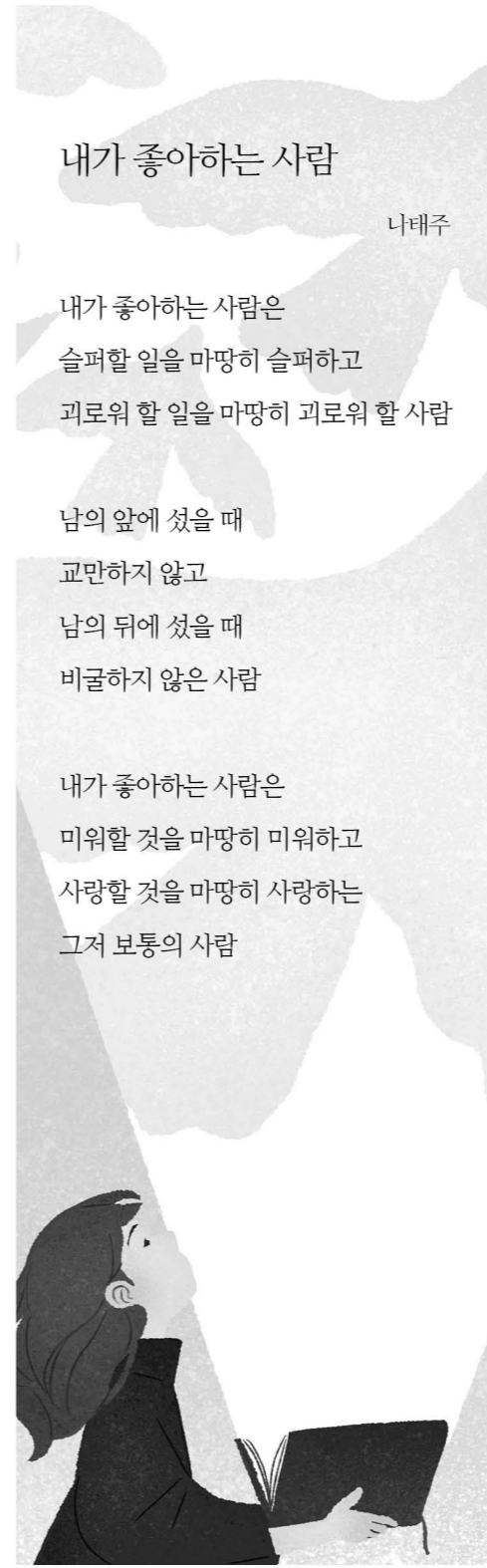
비굴하지 않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미워할 것을 마땅히 미워하고

사랑할 것을 마땅히 사랑하는

그저 보통의 사람



설이 지나고 어느덧 2월이 되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세상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탄핵정국은 서서히 끝으로 치닫고 있으며, 거미줄처럼 얽혀 나라를 좌지우지한 실체는 날날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저 보통의 상식으로 그저 보통의 국민으로 주어진 의무만 잘 하고 살면 되었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며 대기업과 권력의 밀착을 보여주었다. 때는 이때라고 국정지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대권의 책임자라 지칭하며, 연일 전시행정과 각종 공약의 단초를 뿌리기 시작했다. 탄핵이 결정되면 두 달 후 대선이 치러지니 몸과 마음이 바쁘지 않으면 안 될 테니까 말이다.

최근 드라마 '도깨비'가 인기 절정에 올랐다. 줄거리는그 주인공 도깨비는 조직에 충성하고 왕을 지키던 충직한 장군, 간신의 모략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은 주인공이 신을 통해 도깨비로의 환생해 불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불멸을 끝내기 위해 인간 신부가 필요한 '도깨비' 그리고 그와 기묘한 동거를 시작한 기억상실증 '저승사자', 그들 앞에 '도깨비 신부'라고 주장하는 '죽었어야 할 운명'의 소녀, '도깨비'는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인간 신부를 '지키려는' 자가 되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저승사자'는 '저승으로 데려가는' 자가 되어 현세에서 인간과 동거하며 벌어지는 슬프고 신비로운 이야기이다. 그 결말은 죽은 자들이 다시 한 번의 삶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의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이다. 어쩌면 도깨비의 이 열풍은 사랑과 믿음이 자본과 권력에 힘없이 풀려버리는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아주 근본적인 신뢰를 지키려는 도깨비의 줄거리에서 대리만족을 통한 것은 아닐까? 물론 주인공 공유와 김고은 그리고 다른 주인공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어떤 역량을 내세우기보다 먼저 국민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괴로워 할 줄 알고, 교만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으며, 미워할 것을 미워하고 사랑할 것을 사랑할 줄 아는 평범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인격이 충만한 사람이기를 바라본다.

글 이영진 younggeen2@naver.com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도립미술관 초대전 '군산에 살어리랏다'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2월 6일부터 근대미술관(구 18은행 군산지점)에서 도립미술관 초대전 '군산에 살어리랏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립미술관의 도움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탁류가 끝나는 곳, 풍요로운 들판과 근대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군산에 터를 잡고 뿌리 내린 '군산 미술가'들의 작품 20여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2015년 1월 작고한 하반기 화백은 군산 출신 화가로 7세부터 수묵화를 그려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받았으며, 문복철 화백은 군산에서 일평생을 작가이자 교육자로서 활동하며 한지회화를 세계에 알렸다. 이밖에도 재로서의 마포와 환영으로서의 마포가 일찌던 박장년 화백의 회화 등 우리 산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작가들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군산의 서정적이면서도 담백한 자연과 삶의 미의식을 담아냈다.

2013년 6월에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분관으로 개관한 군산근대미술관은 전북도립미술관과의 협력(MOU) 협정에 따라 근대기 활동한 작고화가의 작품을 주제로 한 '시간의 흔적展', 근대유명작



가와 중국, 일본 등의 대표 작가들의 서예작품을 주제로 한 '먹의 숨결展', 신태균 사진작가의 작품을 주제로 한 '필름 속의 추억' 등을 개최한 바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하여 "다양한 작품을 통해 관람객은 물론 군산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군산이 가진 역사와 시간,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작년 한 해 동안 100만명의 방문객이 방문하였고 30여

회의 다양한 전시 및 공연을 통하여 살아있는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매월 평균 6만여명이 방문, 군산 원도심 활성화와 근대문화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작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된 전국 5대박물관으로 선정되고, 박물관 인근의 7개 건물이 테마단지화 되면서 전국적인 가족단위 체험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주말에는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길게 늘어진 관람객의 모습이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다.

초봉이의 혼인이야기

1930년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요된 식민지 근대화는 조선민중을 끊임없이 도탄과 고통에 빠뜨린다. 전통의 질서가 해체되고 식민 자본주의가 자리잡기 시작한 시대에 윤리와 도덕은 무너지고 욕망은 인간성마저 돈으로 사고 팔기에 이른다.

이시기 식민지 수탈의 거점이며 시대적 모순이 극명한 군산을 배경으로 채만식의 소설 '탁류'가 쓰여졌다. 탁류의 등장인물에는 당시의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미두장의 투기꾼 정주사의 딸 초봉이는 신식교육을 받았고 주변에서 탐내는 예쁜 신부 감이다. 의사를 꿈꾸는 가난한 승재를 좋아하지만 가족을 위해 아버지 정주사의 노름빚에 고태수에게 혼인을 빙자해 팔려가다시피 한다. 고태수는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다 초봉이를 탐내던 형보의 계략으로 죽게 되고 임신한 채 혼자가 된 초봉이는 살기 위해 한약방을 하는 박재호의 첩으로 들어간다. 남편 고태수, 강제로 겁탈한 형보, 한약방 박재호 셋 중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를 딸을 낳았지만 딸 송이를 학대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형보를 결국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된다.

소설속의 초봉이는 식민지 국가의 민중으로, 정주사는 무능한 나라 조선으로, 초봉이를 몰락시키고 끝없이 괴롭히는 형보는 일본, 부도덕한 고태수와 박재호는 당시 조선을 둘러싼 열강을 암시하

듯 묘사되어있다. 동생 계봉은 활달하고 건강하며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자유의지가 있고 역사의식과 실천의지가 있는 신여성이다. 남승재는 가난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무조건 돕고 보는 인물이다.



세월이 흘러 탁류의 등장인물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일까?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도시에 공장이 세워지고 농촌의 초봉이는 신발 공장이나 봉제공장에서 수출 100만 불 시대 산업화의 역군이 되고 일본이 떠난 자리에 미군들이 들어온 영화동의 제니가 된다. 동일방직, YH, 평화시장에서 계봉이는 투사가 되고 그들을 돕는 청년학생들은 남승재의 모습을 하고 있다.

21C 신자본주의 시대 초봉이의 후예들은 삼성의 수역 짜리 말을 타는 대신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에서 알바를 하며 바늘구멍 너머 취업의 문을 두드린다. 그들은 오늘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원숭이들만 올라갈 수 있는 나무에 1등

으로 오른 천재들은 수많은 공시 족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되어 민중을 깨워 지로 부르며 국정을 농단해 왔고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탁류가 흐르고 있다. 현재 군산의 근대문화역사지구엔 탁류길이 있는데 소설 '탁류'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다.

지난해 '초봉이의 혼인이야기' <탁류길로드쇼>를 6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초봉이를 '모던걸'이라는 캐릭터로 재탄생시켜 신 한복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 한복을 입은 들러리들과 함께 근대역사박물관에서 탁류 길을 지나 동국사까지 가면서 히로스 가옥앞 프미마켓에서 놀기도 하고 이성당 앞에서 음악에 맞추어 단체로 플래시몹도 하고 안젤라 분식에서 떡볶기와 잡채도 먹고 초원사진관 앞에서 관광객들과 사진도 찍었다 신랑·신부 모델은 군산지역의 대학생들이 맡고, 들러리들은 중 고등학생들이 참여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의미보다 재미가 앞서 있지만 나는 이들에게서 군산 문화관광의 미래를 기대한다. 이들과 함께 만드는 '모던걸 웨딩스토리'가 군산에서만 볼 수 있는 진정성 있고 독특한 문화관광 콘텐츠가 되기를 꿈꾸며, 오늘도 칼바람 부는 겨울밤 내 마음의 광장에 촛불을 켜다.

이미숙
차림문화원 대표 복식 수석큐레이터
010-5284-7503

군산시민예술촌! 일상 속 문화예술 가치발견과 시민에 의한 문화도시 실현에 앞장선다.



전라북도 군산의 (구)우일극장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공간활용을 통하여 창작활동의 기회제공 더불어 일제강점기 시대이후 근현대 역사의 중심에 있던 개복동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17년 군산시민예술촌이 새로운 비전을 다졌다.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창작소라는 기치아래, 현재 군산시의 역점사업인 문화도시 실현이라는 목표와 뜻을 같이하여 민, 관, 학이 함께 '사람'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휴머니즘 공간으로서 시민예술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특히, 창의문화인재육성과 군산의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어쩌다 예술학교'를 연중 운영할 예정이며 상반기 벚꽃 개화시기에 전국버스킹대회 개최를 통해 역동적이며 창의적인 문화예술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더불어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의 시기를 맞추어 공연과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예술촌과 예비 문화기획자들의 콜라보레이션 기획공연을 준비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아트테리토리 야외갤러리 운영, 개복동 경관조성 프로젝트, 이야기가 있는 개복동 보물지도 만들기 등 개복동 거리 활성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예술단체 네트워크 사업인 오락실클럽 운영, 인문아카데미, 음악이 있는 영화콘서트, 스릴러콘서트, 힐링콘서트 등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지역예술인의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2017년을 분주히 보낼 예정이다.

군산시민예술촌
GUNSAN CITIZEN ART VILLAGE

군산시 중정길 17(구 우일극장)
063-443-7725 / www.gsartzone.kr

1945 Thanks Rice & Nature / Health Bakery 1945

Thanks to rice and nature. Since 1945 bakery that considers your health. The beginning of a healthy day is baked here! The place where it gives a stir in one's heart By Lee Sung Dang Bakery.

LEE SUNG DANG
Thanks Rice & Nature / Health Bakery 1945

해방과 함께 시작된 '이성당'의 내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쌀로 만든 건강한 빵

이성당은 자연과 쌀에 감사하며, 손님을 대접하는 정성스런 마음으로 항상 노력합니다.

이성당의 대표적인 빵은 양금빵과 아채빵이 있으며,

2006년 부터는 쌀과 빵을 연결하는 일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블루빵'으로서 일본의 니가타현에 있는

'겐리치' 제과점에서 전수 받았습니다.

현재에는 효모종을 이용한 다양한 쌀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LEE SUNG DANG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주문 및 상담 . 전화 063-445-2772, 080-445-2772(무료)
전북 군산시 중앙로 1가 12-2

“청소년 선거권을 넘어 참정권으로의 여행, 그 시작”

국회 청소년 참정권 토론회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는 지난해 7월부터 18세 선거권을 중심으로 청소년 참정권 확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네트워크이다. 현재 전국 146개 기관 단체가 연대하고 있으며 군산의 청소년 자치연구소에서 네트워크 사무국을 맡고 있다. 작년 김관영 의원, 박주민 의원 등 몇몇 국회의원들이 선거권 연령 관련 법안을 발의 하였고, 청소년활동가들이 18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성명서를 SNS를 통해 십시일반 모금하여 한겨레에 발표하면서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정건희 소장 등이 지속적인 활동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슈에 맞춘 토론회와 보도자료 등을 내는 이슈 파이팅을 넘어서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청소년 참정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청소년참정권 토론회’를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본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그 동안 전국 청소년들의 활동 내용을 청소년들이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향후 청소년참정권 확보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18세 선거권 갖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캠페인, 간담회, 토론회, 포럼, 워크숍, 축제, 플래시몹 등의 활동이 100곳이 넘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더불어 서명운동, 전국 청소년참정권 실태조사,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 관련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며 이 모든 활동을 정리하여 종합 백서적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를 토대로 금번 2017년 1월18일 국회에서 청소년과 관련 의원들이 오전에

정건희 소장의 사회로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 공연과 참정권에 대한 콩트를 시작으로 오프닝이 진행되었으며, 18세 선거권 공동행동네트워크의 활동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영상을 상영하였고, 1부는 최윤진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그간 활동한 청소년들이 전국의 청소년들이 야기를 취합하여, 참정권의 의미, 18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 확보방안, 참정권에 대한 실태조사, 참정권의 당위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전북 군산의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

그락의 김정윤 청소년은 “다양한 사회 참여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청소년 참정권은 청소년들의 의견 그 자체다. 선거권이 주어지면 정치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획득하게 되고, 누구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예외 지대가 없어지는 민주적인 사회가 만들어지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경남 거창의 허민 청소년은 18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참정권을 이슈화 시키는 홍보가 필요하며, 기성세대와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소년참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활동과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충북 보은의 김희연 청소년은 충청북도에서 청소년들이 연대하여 활동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서울동작 청소년문화의집의 김홍균 외 3명의 청

소년들은 뉴스 프로그램 형태로 외국의 사례와 본 네트워크에서 진행한 전국 실태조사를 요약 발표했으며, 박배민 청소년은 현재 탄핵 촛불집회 등에 나가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도 시민으로서 당연히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나이는 18세가 아닌 가능한 모든 이들이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는 더불어 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사회로 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법안을 개정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청소년들의 토론 및 제안이 있었다. 김관영 의원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더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걸어온 역사이며,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은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고 말하며 적어도 교육감은 17세 또는 18세가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 시절 선거연령이 19세인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송을 진행하였으며 그때 당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었다고 하였다. 교육감 선거는 적어도 만 16세에는 가능해야 하며, 정당가입연령을 15세로 주장한다고 하였다. 윤소하 의원은 선거권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청소년들이 전국적으로 힘을 모으면 국회의원들이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함께 만



들어가지고 강조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정치에 대한 분석을 성숙하게 하는 청소년을 만났고, 촛불집회에서도 청소년들의 성숙된 모습을 보았다고 전하며, 여성의 참정권이 없었을 때에도 그 이유는 판단능력 부족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의 참정권이 보장되는 지금은 그것을 당연히 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청소년들의 판단 능력 부족도 타당한 논리가 아님을 언급하였다.

의원들의 발표가 있는 뒤, 3부에서는 참여한 모든 청소년들과 의원들이 18세 청소년 선거권이 개정됨으로써 전체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장점, 법안이 본 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가능성, 선거권 획득 시 학교에서 정치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에서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

순서로 경기 의정부 등에서 참정권 활동을 한 청소년들이 본 네트워크를 대신해서 작년 수개월 동안 전국에서 서명한 서명지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민주화 운동의 대부인 함세웅 신부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큰 희망을 보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로 토론회는 막을 내렸다.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는 향후 청소년참정권을 진행하는 연대 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활동하여 2월에 반드시 18세 선거권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자기 삶과 자신이 속한 공간에 참여하고 자치하며, 참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



▼ 더불어 민주당 권미혁 의원



▼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 의원



▼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 김정윤 청소년-달그락달그락



▲ 정건희 소장-청소년자치연구소



▲ 정의당 윤소하 의원



▲ 중앙대 최윤진 교수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후원문의 : 063-465-8871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youthautonomy/>

군산에서 펼쳐지는 축제 및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를 찾아다니며 군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행사 및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 23일까지입니다. jay0810@hanmail.net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GUNSAN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제16회 군산 어르신 예술제 군산예술의전당	어린이「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군산예술의전당
			01	02	03	04
					전북도립국악원 정월대보름 공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뮤지컬 '행복을 찾는 담배가게 아가씨 2' JBCM아카데미 제1회 정기연주회 전북도립국악원 정월대보름 공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05	06	07	08	09	10	11
		아모르 파티 (Amor Fati)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립국악단 제207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피아노 듀오 콘서트 비상 군산예술의전당
12	13	14	15	16	17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시즌2 <액션콘서트> 테너 강명현 독창회 클랑플루트 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시즌2 <액션콘서트> 소리샘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22차 군산예총 정기총회 군산예술의전당	전북초등교원 스트링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민연극 라이어3 군산예술의전당	국민연극 라이어3 군산예술의전당	아트스테이지 소리 : ep56 이한철 벨리타 앙상블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19	20	21	22	23	24	25
헤르즈 워드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한정운 피아노 독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6	27	28				



- 전시**
- 군산예술의전당
패션주얼리파체험전시 헬로! 아프리카전
2017-02-01 ~ 2017-02-28
 - 제16회 군산어르신예술제 작품 발표회
2017-02-02 ~ 2017-02-03
 - 한일 아동미술 작품 교류전
2017-02-04 ~ 2017-02-09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12.20(화)~02.26(일) 이영란의 밀가루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p>모세스영아원 군산시 개정동 413 (063) 452-4075</p>	<p>구세군군산후생관 군산시 신흥동 58-10 (063) 445-9331</p>	<p>삼성애육원 군산시 신창동 7 (063) 445-5947</p>
<p>일맥원 군산시 문화동 824-7 (063) 462-2385</p>	<p>신광모자원 군산시 나운동 1242-9 (063) 462-7749</p>	<p>신광모자자립원 군산시 나운동 845-9 (063) 461-8572</p>
<p>구세군군산복양원 군산시 회원면 증석리 58-8 (063) 466-6088</p>	<p>나눔의집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88-1 (063) 464-9944</p>	<p>군산장애이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 3길 37번지 (063) 466-7981</p>

낱말 실력도 높고, 상품도 받고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67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제66호 퍼즐 정답>

송	해			탄	탄	대	로	
구		계		핵		차		여
영	계	백	숙		사	대	주	의
신	명		시	대	사	조		도
	성	비		관		표	등	
악		거	두	절	미		산	유
바	리	스	타		모	야	모	야
리		링		필		수		무
	우	이	독	경			하	야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Fax. (063)911-1856 E-mail. jay0810@hanmail.net

정답이었으나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과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열쇠

- 박근혜·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로 임명된 인물.
- 막다른 데 이르러 이도 저도 할 수 없게 된 지경.
- 지름길.
- 어떤 물체 안의 물기를 뺀. 또는 물기가 빠짐.
- 곡식 따위를 뺏아서 가루를 내고 남은 찌꺼기.
- 꼴이 불만하다는 뜻으로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뜻으로 이르는 말.
- 자매의 남편을 여자 쪽에서 이르는 말. 아저씨의 낮춤말.
-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받는 사람이 다른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
- 집안의 재산을 다 없애버리는 짓. 몹시 소란스럽게 소동을 일으키는 짓.
- 두서너 날. 여러 날.
- 훈련소, 연구소 등에 훈련·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들어감.
- 조선 시대 승정원의 으뜸 벼슬.
- 예전에 죄인을 먼 시골이나 섬으로 보내 살게 하던 형벌.
-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옴.
- 이익과 권리를 독차지하여 국가 정치를 제멋대로 주무름.
- 식량이 궁핍한 봄철의 시기.

세로 열쇠

- 학식이 많음.
- 간단한 기록을 하는 조그마한 공책.
- 지중해에 돌출한 반도 국가로 로마가 수도인 나라.
- 점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맹인.
- 노름판에서 그 판에 건 돈. 또는 그 판에 나온 전체의 돈.
- 경찰 계급의 하나로 총경의 위 치안감의 아래.
- 2016년은 원숭이띠해인 병신년, 2017년은 닭띠해인 〇〇〇.
- 몸집에 비하여 머리가 큰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 밀가루를 만드는 설비를 갖춘 업소.
- 오랫동안 앓고 있어 고치기 어려운 병.
- 단칼에 두 도막을 냄.
-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불굴의 노력 끝에 목적을 이룬 사람의 전기.
- 무를 썰어 넣고 끓인 국.
-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촌으로 돌아감.
-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봄이 시작된다고 하는 날.
- 엽전을 종이로 싸서 발로 차는 어린이의 장난감. 또는 그 놀이.

출제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COFFEE WINE BEER PASTA SANDWICH



군산시 둔율1길 2 (안동집 옆) T. 070-4152-0466



“꿈이란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예요. 언제 하느냐의 문제예요.”

카카오 브런치북 2회 대상 수상

인생을 스스로 걸어가는 소도시 청년들의 리얼 다큐멘터리!

무대가 없으면 어때? 목적 없는 공부를 왜 해? 대학을 안 나오면 어때?
농사가 어때서? 한 번쯤 망하면 어때? 서울에 살아야 할 이유는 뭔데?



우리, 독립청춘

우리는 소도시에서 일한다

배지영 지음

인생을 스스로 만들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소도시 청년들의
따라하고 싶은 43가지 이야기!

북노마드